

西歸浦市 江汀洞

現地學術調查

1995. 8. 5~8. 7.

調查經緯 / 233

社會背景 /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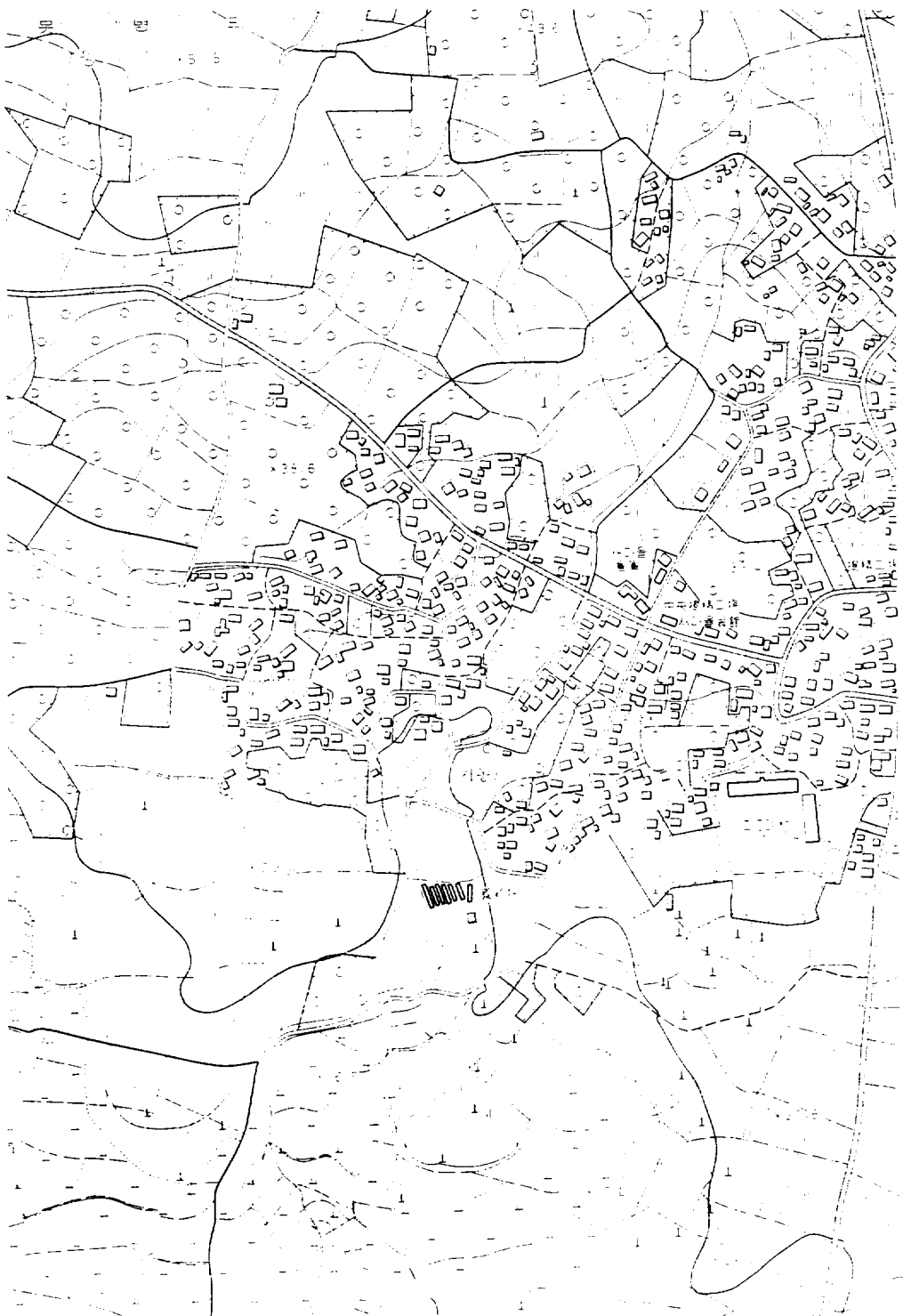
方言 /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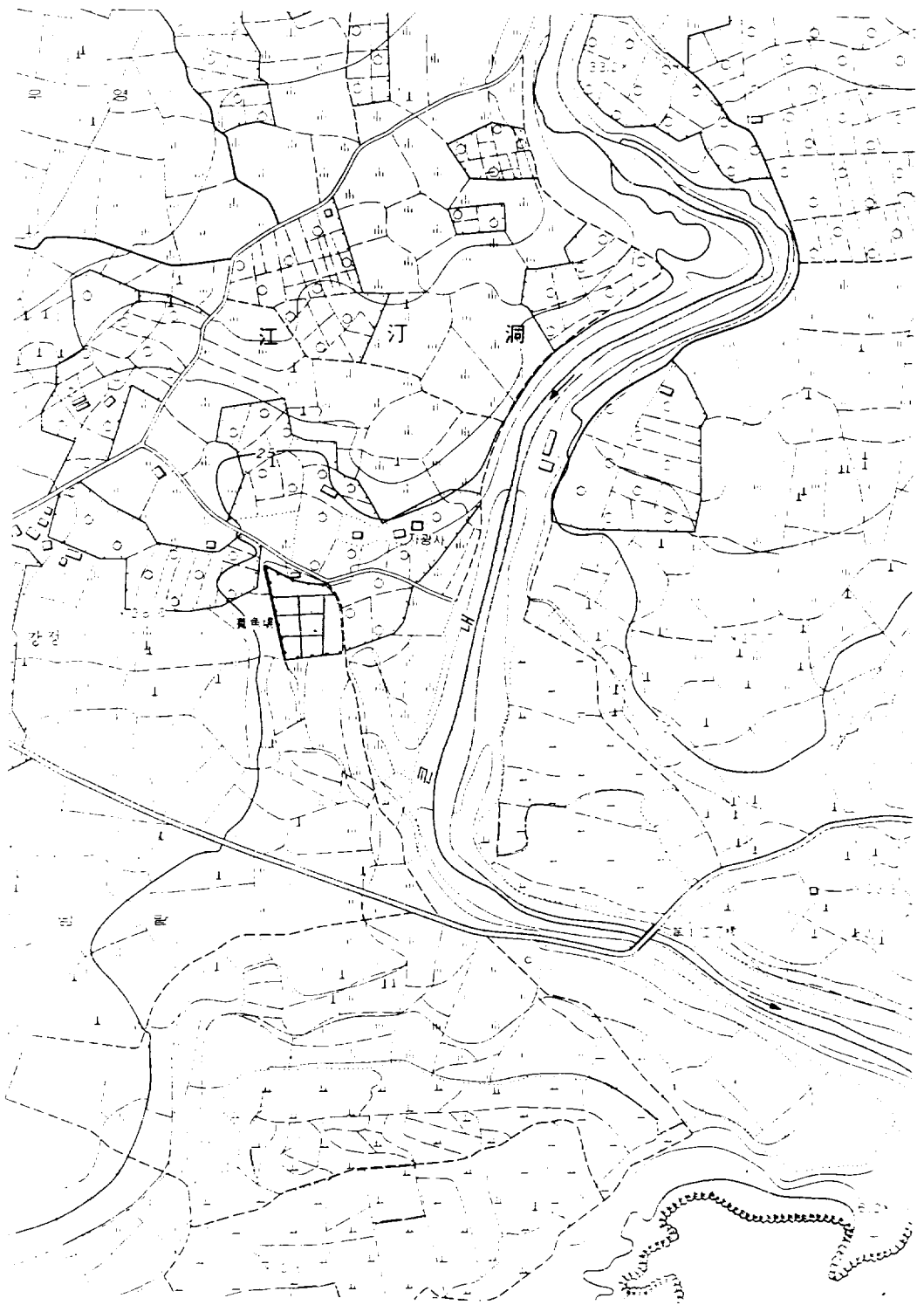
民謠 / 261

說話 / 299

信仰 / 309







〈現地 學術 調査 地域 一覽〉

- | | |
|--|---|
| <p>1차 :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1972. 8. 21~8. 24)</p> <p>2차 : 북제주군 우도면
(1973. 8. 24~8. 28)</p> <p>3차 :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1974. 8. 23~8. 26)</p> <p>4차 : 서귀포시 중문동
(1975. 8. 18~8. 22)</p> <p>5차 :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1976. 8. 19~8. 22)</p> <p>6차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1977. 7. 26~7. 29)</p> <p>7차 :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1978. 8. 6~8. 9)</p> <p>8차 :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1981. 7. 16~7. 19)</p> <p>9차 :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1983. 7. 27~7. 30)</p> <p>10차 :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1983. 8. 17~8. 20)</p> <p>11차 :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1984. 8. 1~8. 4)</p> <p>12차 :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1985. 8. 5~8. 8)</p> <p>13차 :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1985. 8. 16~8. 19)</p> <p>14차 : 남제주군 성산읍 은평리
(1986. 7. 28~7. 31)</p> <p>15차 :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987. 7. 27~7. 30)</p> | <p>16차 :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1987. 8. 3~8. 6)</p> <p>17차 : 북제주군 한림읍 금룡리
(1988. 7. 27~7. 29)</p> <p>18차 :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1989. 8. 1~8. 4)</p> <p>19차 :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989. 8. 2~8. 5)</p> <p>20차 : 북제주군 추자면 추자리
(1990. 7. 27~7. 30)</p> <p>21차 :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1991. 8. 1~8. 4)</p> <p>22차 : 서귀포시 보목리
(1991. 8. 3~8. 6)</p> <p>23차 :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1992. 7. 31~8. 3)</p> <p>24차 : 북제주군 구좌읍 선흘리
(1992. 7. 24~7. 27)</p> <p>25차 : 제주시 봉개동 회천리
(1993. 7. 30~8. 2)</p> <p>26차 :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993. 8. 3~8. 6)</p> <p>27차 : 서귀포시 강정동
(1994. 8. 5~8. 7)</p> <p>28차 :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1994. 7. 29~8. 1)</p> <p>29차 :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
(1995. 8. 3~8. 6)</p> <p>30차 :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1995. 8. 11~8. 14)</p> |
|--|---|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가 실시한 지역을 합친 것임〉

〈調查經緯〉

현지 학술조사는 지역 안 삶의 현장에 접근하여 그 지역에서 영위되는 언어·구비문학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으로써 지역 문화의 발굴과 보존,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심 함양과 조사원 간의 친목 도모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현지 조사의 종류에는 산발적 조사, 개괄적 조사, 심층적 조사가 있다. 현지 학술조사는 개괄적 조사에 속하는 것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자료에 대한 대체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정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계획과 지도에 따라서 비전문가가 다수 참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에 따라서 이론과 실재를 잘 융합하여 행해질 때, 학생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조사를 보조하면서 강의실에서와는 다른 효과적인 학습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술조사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 가령, 사회 배경, 방언, 설화, 신앙, 민요 등 지역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문화를 심층 이해함과 동시에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넓히며, 구비문학 연구에 있어 어떤 주제나 가설을 구체화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얻고, 학생들은 전문가들의 조사를 보조하면서 배우는 살아 있는 학습을 통해 준전문가로 양성되는 등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 아래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학술조사가 중요한 학술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아 1972년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를 시작으로 1993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에 이르기까지 14회 학술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학술조사는 199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학술조사를 위해 먼저, 반 편성과 반장을 선출하였다. 반 편성은 예전대로 사회 배경, 방언, 설화, 민요, 신앙 등 5개 반으로 나누고 각 반장을 중심으로 조사 지역 설정 및 예비 답사를 실시

하였다. 지역 설정에 있어서는 먼저 교수님, 동문 선배님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현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지역과 향토지가 나오는 지역 등을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과 마을의 발전 정도가 심한 지역 또한 제외되었다. 마을의 발전이 덜 이루어짐으로써 학술적 가치가 보존되고 학교나 마을회관 등이 있어 숙박이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해야 했다.

덧붙여 국어국문학과와 학술조사가 95년부터는 3학년의 커리큘럼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전학년이 함께 하는 마지막 학술조사가 되었다. "뜨거운 계절, 시원한 학술조사"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해안가 마을로 지역의 범위를 좁혔다. 이 모든 것이 고려된 후 지도상에서 몇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남원읍 위미리와 서귀포시 강정동이 최종 지역이 되었다. 예비 답사를 실시한 결과 남원읍 위미리는 1리, 2리, 3리로 마을 규모가 상당히 크고 변화한 곳이라 조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결국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 마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지역 선정이 끝나자 그 지역에 대한 예비 답사가 시작되었다. 2회에 걸쳐 강정 마을의 환경과 풍속, 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차로 통장님을 찾아 뵙고 인사 드렸으며, 그 분으로부터 좀 더 얘기를 잘해 주실 분을 소개받아 마을의 이모저모를 여쭙어 보았고, 각 반의 제보자도 확보하였다. 끝으로 학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반별 예비 모임을 가졌다.

2박 3일 동안의 조사 일정 : 8월 5일(제1일) 10시에 학교에 집결, 학교 차량을 이용하여 12시쯤 강정국민학교에 도착, 간단한 입소식과 함께 통장님으로부터 마을 현황을 청취하였다. 조사 준비 후 2시부터 5시까지 1차 조사에 나섰고 저녁 식사후 8시부터 2차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후 1시간 가량 조사 준비와 정리 시간을 가졌으며 취침 전에도 조사 내용에 대한 각 반의 발표 시간을 가졌다. 8월 6일(제2일) 3차 4차 조사가 있는 후 저녁 시간을 이용,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어울림터를 마련했고, 이후 교수님, 동문, 재학생들이 어우러지는 자리도 마련했다. 8월 7일(제3일) 마무리 조사와 함께 반별로 조사에 대한 정리 및 제보자들을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 어른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소를 마친 후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社會背景

指導教授：김병택 김상조

指導補助：정용문

班 員：김원태 (4) 김은형 (3) 김유미 (3) 양경신 (3)
양선예 (2) 강명순 (2) 김영립 (1) 이해정 (1)

目 次

- I. 地理的 環境
- II. 歷史的 環境
- III. 人文 環境
- IV. 產業構造

I. 地理的 環境

서귀포 강정동은 서귀포시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시내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법환동, 북쪽으로는 도순동과 용흥동, 서쪽으로는 월평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로, 제주시에서는 버스 이용시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강정동은 여름철에 동남 계절풍 지대에 속하고,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 지대에 속해 있으며, 도서 지방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 차례 강풍이 불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던 적도 많다. 서귀포시에 포함되는 이 지역은 국내 제일의 다우 지역에 속하며, 연간 강수량은 1,500~2,200mm에 달하고 있다. 특히 4~8월까지의 연간 강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강정 지역의 토양은 암갈색 비화산회토의 분포가 많고, 사질양토 내지 식양 토로써 배수 및 통기가 우수하며 1~2년생 경계 작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배수가 양호한 壤質系 토양으로 토양 단면 내에 자갈이 35%미만 산재되어 있으며, 밭 및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정동(용흥 포함)은 월평동, 도순동, 영남동의 법정동과 함께 대천동에 포함되고 있다. 대천동에는 강정, 용흥, 월산, 염돈, 도순, 월평의 자연부락이 있으며, 강정동은 1, 2, 3, 4(용흥마을)통 21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면적은 총 1573ha로 밭이 536.2ha, 과수원이 97ha, 대지가 18.8ha이다.

구 분	밭	과수원	대 지	임 야	목 장	기 타	계
면 적	536.2	97	18.8	-	-	921	1,573

(93년 12월 31일 대천동사무소)

강정 마을의 주변에는 강정천과 아끈천 등 물 좋은 시내가 소재하고, 이런 덕분에 주변에 비옥한 논, 밭들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예로부터 전해 오는 '第一江汀'이라는 이야기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강정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1Km 쯤에 위치한 강정천은 서귀포시 일대와 남제주군 지역 일부의 상수도 수원지로, 물이 깨끗하고 차갑기로 유명하다. 옛날에는 大加來川이라 불려졌던 강정천에는 은어가 많이 서식하며, 상류에서 하류까지 네길이소, 벼락맞은소, 가시물소, 남동지소, 긴소, 왕돌매기소 등의 고유 지명을 가진 형승지가 있다.

마을의 주요 지명으로는 대궐 주춧돌의 유편으로 보아지는 기와 조각이 발견된 대궐터(강정동 4264번지)를 비롯하여 옥다루, 장구밭, 왕대밭, 쏘대밭, 사장밭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강정 마루동산, 당동산, 평망동산, 매마루 등의 작은 동산들도 마을의 내력과 함께 정취를 더해 주고 있다.

II. 歷史的 環境

강정 마을의 본래 지명이 어떻게 불려졌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문헌 상으로 볼 때 이조 세종(1419-49)때 도내에 방호소가 많이 설치되었고, 가래 방호소(加來防護所)도 이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강정의 옛날 명칭은 가래(加來)가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가래현의 유래는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신라 진흥왕(535-546)때에 제주도를 5道 15縣으로 구분하였다고 하니 본래 강정의 원주민들이 누구였는 지는 알 수가 없다.

加來라는 최초의 문헌 기록은 1653년에 만들어진 탐라지에서 비롯된다. - 동해(회수)성 안에 객사와 군기고가 있는데, 정덕(明 무종 5년 서기 1510년)경오년에 가래 방호소를 옮겨 온 것이다. (東海城內有客舍 軍器庫 正德庚午移 加來防護所 干..)-

가래현 당시의 유적으로 보이는 대궐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 1984년 강정 청소년회에서 자체 조사하여 무늬있는 청자 파편 59점, 무늬없는 청자 파편 123점, 분청사기 파편 20점, 백자 파편 52점, 토기 파편 116점, 기와 파편 7점, 대리석 파편 4점 등을 수집하였다. 이를 서울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고증 의뢰한 결과, 고려말에서 이조 초기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가래현은 제주도가 東·西縣으로 구분되기 이전인 1300년 경으로, 그 당시에 이곳에 커다란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709년에 작성된 탐라고지도에 보면 새수촌, 강정촌, 고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점으로 미루어, 1510-1709년 사이에 加來에서 江汀으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그 후 1709-1831년 간에 새수촌, 염둔 등이 강정으로 귀속된 듯하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강정 마을에서는 가옥 울타리의 돌담과 논밭 경계의 돌담들을 옮겨다 마을 주위로 接城을 쌓았는데, 이 돌담성은 밑넓이 약 6척, 높이 약 13척이고, 성 밖으로는 약 6 척 깊이의 호를 파서 가시나무를 얹혀 놓았다 한다. 강정 지역의 동광동, 가래동, 불허터, 내강정 주민과 용흥

동 주민들을 성 안으로 옮겨 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마을 남자들은 民保團과 韓靑 組織으로 편성하여 성내의 야간 경비를 담당하였다.

1946년 8월 1일 제주도가 道로 승격된 후 강정리는 중문면에 속해 있다가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면서 서귀포시 강정동이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 초까지 강정리는 1구인 현 강정동과 2구인 현 용흥동을 포함한 마을이었으며, 현재 강정동은 용흥 마을을 포함하여 4통 21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Ⅲ. 人文 環境

강정동은 94년 7월 31일 현재 총 633가구에 인구는 2,284명이다. 총 인구에서 성별로는 남자 1,099명, 여자 1,185명으로 여자가 약간 많다. 강정동의 인구 현황을 통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대 수	남	여	인 구
1통	222	389	420	809
2통	236	419	438	857
3통	175	291	327	618
계	633	1,099	1,185	2,284

(대천동사무소, 용흥마을 제외)

84년 5월 총 인구 2,292명, 87년 총 인구 2,310명과 비교해 보면 근 10년 동안 인구수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서귀포시에서 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81년 8월부터 강정 경유 서귀포시 서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가 개통되어 주민들의 마을 밖 출입이 더 편리하게 된 이유 등을 꼽을 수 있다.

강정동에는 30여 성씨가 분포되어 있는데, 성씨별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성씨	윤	김	강	고	이	조	홍	박	정	유	한	양	현
호수	96	94	86	62	48	41	21	11	8	7	6	6	5
성씨	문	진	원	황	송	최	손	천	변	안	신	채	허
호수	3	3	3	3	2	2	1	1	1	1	1	1	1

위의 표에서 살펴 보면 주요 성씨는 윤, 김, 강, 고, 이씨 순이다. 처음 입학한 성씨들은 김씨, 고씨들로 약 360년 전이고, 다음으로 윤씨, 강씨, 조씨가 300여년, 그 다음 홍씨, 이씨들이 250여년 전에 이 마을로 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 외에 한, 현, 진, 원, 최, 신, 변씨 등이 1~6가구씩으로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정 마을은 거의 같은 성씨로 이루어진 씨족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강정동의 자체 단체 및 조직으로는 청년회, 영농회, 부녀회, 어촌계, 노인회, 조기회, 청소년회, 작목반 등이 있다. 단체에 따른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체명	사 업 내 용	단체명	사 업 내 용
청년회	가래 문화제, 문고운영, 체육대회, 지역선도	영농회	선과장 운영, 불우이웃돕기
부녀회	경로잔치, 거리청소, 폐품 수집	어촌계	불가사리 제거, 복지사업, 양식장 운영
노인회	농약공병 수집 판매, 노인교실 운영, 수재 의연금 기탁, 효자부부 표창	청소년회	꽃동산 조성, 방역활동, 불우이웃 및 일습돕기
감 굴 작목반	선과장 운영, 감굴비료 공동판매	원 예 작목반	마늘, 금귤, 파인에플 유통 개선
바나나 작목반	협동생산 공동판매	조기회	지역체육 진흥

서귀포시 강정동 4550번지에 위치한 강정국민학교는 지난 1946년 9월 1일 학교설립이 인가 되면서, 부락 유일의 공인 초등교육 기관으로 첫 출범을 하여 그 해 12월 6일 개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강정국민학교는 향사 건물을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육 시설을 개량 확장시킬 필요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강정 출신 제강공진회가 학교 부지로 강정동 4550번지 토지를 기증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강정국민학교 신축 기성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학교 건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교직원 현황과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사	유치원 교사	일반직	보전직	기능직	일용 잡급	계
남	1	1	2	2		1		3		10
여				3	1		1		2	7
계	1	1	2	5	1	1	1	3	2	17

<학생 현황>

(1994년 3월 현재)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남학생	13	19	11	12	18	19	92
여학생	17	12	17	15	20	11	92
계	30	31	28	27	38	30	184

IV. 産業構造

1950년도까지 강정 주민들은 주로 보리, 벼, 조 그리고 약간의 고구마를 경작하였으나, 1952년 강정 전분 공장이 생기고 60년에 월평 전분 공장이 가동

되자 본격적으로 환금작물인 고구마 생산에 주력을 기울였다.

50년대의 고구마 총 생산량은 약 30만관에서 50만관, 60년대에서 70년도까지는 60만관에서 70만관까지 생산하였다. 이처럼 70년도까지는 고구마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보다 높은 소득을 가져다 주는 굴나무를 널리 심어 80년도에 50만관에서 83년에는 70만관 이상이 생산되었다.

현재 강정동의 농가 호수는 609호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감귤에 거의 모든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이외에 마늘 200호, 화훼가 60호, 시설 원예가 10호, 금귤은 60호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가축은 거의 기르지 않는다.

강정 지소 농협의 경우, 저축 실적을 살펴보면 90년에서 91년 사이에 21%가 증가하였고, 91년도에서 94년 사이에는 매년 10%씩 저축액이 증가하였다.

감귤과 마늘, 고구마 등의 밭농사, 화훼와 시설원예 등의 농사에 따른 농기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운기	관리기	난방기	분무기
203	73	233	74

어업 현황을 살펴보면, 어민의 총 가구수는 20가구로 모두 밭농사와 겸업을 하고 있다. 1987년에 설립된 어촌계의 회원은 잠녀 156명을 포함하여 1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1년에 2번 정도의 바다정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어선은 동력선(3t미만)이 12척, 비동력선이 3척으로 모두 15척이며, 잠녀는 40~50대로 한달에 15일 정도 작업하고 있으나 1인당 수입이 250~300만원에 그치고 있어 큰 수입원이 되지는 않는다.

생산물별에 따른 작업 실적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산물	전복	떡조개	해삼	소라	꽃	섬계
무계(kg)	600	1300	2000	3000	10000	2500

(강정동 어촌계 자료)

이외에 상업 활동도 살펴볼 수 있는데, 잡화점 12개, 교습소(학원) 4개, 목
공소 2개, 보일러 설비 2개, 식당 및 식육점 7개, 비디오 대여점 4개가 있고,
얄미늬 새시, 양어장, 미용원, 이용원, 중기 대여, 세탁소, 약방 등이 각각
1개씩 있다.

方 言

지도교수 : 강 영 봉

지도보조 : 오 창 명

반 원 : 고명훈(4)

한수정(3) 문공미(3) 이은주(3)

박정섭(2) 변희숙(2) 강경희(2) 좌혜정(2)

정경미(1) 김현진(1) 전은경(1)

— 목 차 —

I. 머리말

II. 조사어휘의 분류

- | | |
|--------|--------|
| 1. 농업명 | 2. 기구명 |
| 3. 동물명 | 4. 식물명 |
| 5. 지명 | 6. 속담 |
| 7. 인체명 | |

I.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94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행해진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방언'조사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반원들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기초로 농업명, 농기구 및 가재 도구명, 동물·식물명, 지명, 기타 속담 등으로 되어 있다.

조사시 능률과 효과를 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전답사와 예비모임을 가지면서 강정마을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특수성을 살피고자 노력했으며, 그에 따

라 일찍이 벼농사가 발달하고, 물이 좋아 장수마을로 통칭되고 있는, 이 마을의 특성을 살려 벼농사에 관계된 어휘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명을 살피는데 역점을 두었다.

조사 전에 가진 예비모임에서는 「국문학보」, 「백록어문」, 「한국방언조사질문지」 및 현평효의 「제주도 방언 연구」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4차례에 걸친 본 조사에 들어가서는 <국어사전>과 <식물도감> 등을 참조하였다.

조사는 주로 면접을 통한 조사를 하면서 필기와 녹음을 병행하였다.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반원들의 높은 사기로, 조사 결과도 썩 좋았으며, 반별 조사 정리시간에는 각자의 필기결과와 녹음 테이프를 비교·대조하여 공통되는 것을 뽑아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는 표준어와 그 표준어에 상응하는 제주도의 일반적인 방언 및 강정지방 특유의 방언을 실어 비교하기 쉽게 하였다. 지명은 그 이름에 얽힌 유래를 자세히 실기 힘들어 명칭만 적었으며, 속담은 거의 3백여개에 달하는 자료를 얻었으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과 타지역과 중첩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취재 내용 모두를 수록하였다.

II. 조사 어휘의 분류

1. 농업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강정방언	비고
벼	나록	나록	
벼이삭	나록고고리	나록고고리	cf. 보리이삭 : 보리고고리
뒤	늑	늑	(쌀곡에 섞인, 겨가 벗겨지지 아니한 벼의 알갱이)
범씨	나록씨	나록씨	
눔	눔	눔	날쌔운 밭의 품꾼
벼단	나록뭇, 나록단	나록뭇	
벼가리	나록늘	나록늘	(벼단을 쌓은 더미)
짚	짚	쩍	cf. 짚늘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강정방언	비고
새끼	스끼	스끼	
무	눔배	눔배	
무말랭이	무우말랭이, 생기리	무물랭이, 생기리	
채소	채소	송키	
나물	눔물	눔물	
파	패마농, 마농	패마농	cf. 마늘 : 콤대사니
고구마	감저, 감즈, 감저		
감자	지술, 지실	지술	

2. 기구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강정방언	비고
쟁기	잠데	장기	
보습	보섭, 보좁	보섭	(삼 비슷한 첫조각)
호미	골갱이, 골각지, 골개기	골갱이	
자루	주룩/몽클	주룩/몽클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손잡이 ⇄ 주룩
괭이	광이	괭이	
삼	삼가래	갈래죽	cf. 나무삼 : 남갈래죽
따비	따비	따비	(밭로 밭아 땅을 파는 것)
낫	호미, 서	호미	
쇠스랑	쇄시렁	소스랑	
곡괭이	못괭이, 못괭이	못괭이	
도리깨	도깨, 도께	도께	(곡식 터는 것)
흙방망이		곰배	
흙덩이	혹멩이	혹병멩이	
갈퀴	글갱이	글갱이	
절구	남방애	남방아	cf. 세쿨 방아는(스쿨)방아
절구공이	방엿귀, 벵잇귀	방앗귀	
멧돌	꺾래	꺾래	
연자매	돌방애, 돌방이	돌방애	(마소를 부리어서 곡식을 쪼는 큰 매. 연자 방아, 연자매)
길마	질매	질매	(소의 등에 얹어 짐을 싣는 안장)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강정방언	비고
삼태기	굴채, 굴채	굴채	
채롱	차롱, 채롱	차롱	cf. 물을 담아두던 용기: 물甕
채	채	채	cf. 채의 굵기에 따라 구분
키	푸는채	푸는채	
망태기	맥	맥/망태	(새끼로 엮어 만든 그릇) cf. 크기에 따라 구분 맥(大), 망태(小)
도마	듬베	듬베	
나무주저	낭주저, 낭주죽	낭죽	cf. 밥자: 밥우굼 밥을 담아 먹던 큰 그릇: 낭폰, 낭도구리(나무)
국자	남자	남자	
아궁이		숫강알	
부지맹이	부지맹이, 부지맹이	부지맹이	
화덕		숫덕	
부삽	부술	불그네	(숫불이나 재 따위를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삽) cf. 당그네(보리)
괘	괘	괘	
시렁			'시렁'이라는 말의 개념은 없었고 계보자가 '벽장' (백장)을 인식하고 있었음.
살강		살래	(그릇을 엮고자 부엌 벽에 건너지른 선반)
거울	색경	색경	cf. 멩경: 손에 잡고 보는 작은 거울.
뒤주	두지	두지	곡식 놓는 괘
바디	부디	부디	(베를에 달린 물건의 하나) cf. 북.
베를		베클	
항아리	망대기, 망다기	독, 동대/망대기	cf. 크기에 따라 구분 독, 동대(大), 망대기(小)
장독대	장항굼, 장팡굼	장팡뒤	cf. 장독간
뒤	뒤	뒤	cf. 수치의 개념 변화 (古) 10뒤→1말, (今) 4뒤→1말.
바가지	박새기	물박새기	
물동이	대바지	대바지	물동이는 머리에 이는 용기이 지만 제주에는 지고 다니는 물허벅이 통용됨. cf. 물지게

3. 동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강정방언	비고
서캐	귀	귀	(어의 새끼) cf. 이(늑)
벼룩	베룩	베룩	
모기	모기	모기	
파리	푸리	푸리	cf. 쉬푸리
두더지	지다리, 모로	지다리	cf. 강정지방에서는 오소리를 지다리로 지칭하고 있었음.
가시	가시	가시	(음식물에 생기는 구더기)
지렁이	지렁이, 지룡이	계우리	
회충	계우리	계우리	
개미	개염지, 게여미	개염지, 게여미	
곰팡이	곰팡이	곰팡이	
바구미	좁	좁	(쌀에 이는 벌레)
지네	지녕이, 주녕이	주냥이	
거머리		거멀	
진드기	진독, 진독	진독	(소의 피를 빠는 것→부구리) cf. 용에(밀감나무)
반딧불	불한지	불난디	
벌	벌	벌	cf. 벌의 종류: 산에 사는 큰 벌(쇠상벌, 사상벌), 꿀벌(침벌)
거미	거미	거미	
매미	재열, 자리	지열	cf. 매미 울음 소리: 짹짹
사마귀	곡취애기, 당이앵이	곡취애기	
메뚜기	말축, 만축, 말축	말축	
귀뚜라미	공중이, 공쟁이, 공쟁이	공중이	
개구리	골개비, 가개비, 개개비	개가비	cf. 두꺼비(두개비) ※관련 속담: 개가비통에 돌 떨어진 것 닮다.
풍뎡이	두미애기, 두매기	두매기	
소		쇄	cf. 송아지(송애기), 멧돼(밭갈 때 사용), 쇠질매(소의 등에…), 소입막이(쇠망울), 두엄(쇠걸름), 토비늘(주로 풀로 만든 두엄)
염소	염쇄	염소	
말	물	물	
개	개	개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강정방언	비고
고양이	고녕이, 고녕이, 궤	고녕이, 고녕이	
닭	독	독	cf. 닭모이(독모이)
빙아리	빙애기, 빙아리, 비애기	빙아리	
달걀	독새기	독새기	
벗	오달	오달	
뱀	베염, 버염, 베미	베염	cf. 뱀의 종류: 구렁이(구렁이), 물뱀기(독사)
돼지	돛, 돼야지, 도야지	돼야지	
노루	노리	노리, 노로	
여우	여히, 여의, 여호	여호	
토끼	튀끼, 튀께, 토께	토께	
살쥬이	식, 극	식	
귀	정이, 행이	행이	
박쥐	드람쥐, 드람지	드람쥐	
제비	제비새	제비새	
까마귀	가마귀, 가나귀	까마귀	
참새	참새	참새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들기	cf. 비둘기 울음소리: 죽국죽국.
매	참매	매	

※ 바다고기 목록

- (1) 감은돔, 갯돔, 옥돔, 황돔
- (2) 구문쟁이, 어렁이, 복쟁이, 궤멍이, 논쟁이, 살쟁이, 모살멍이...
- (3) 갈치, 까치, 상치, 소치, 망치, 서치, 요치, 다치, 메역치, 엄불치...
- (4) 돔바리, 아굼바리, 복바리, 맥진다리, 벤자리, 모도리, 가다리, 자리...
- (5) 먼조기, 황조기, 수해기, 조기, 각재기, 공소애기, 복조기, 보들레기
- (6) 은상어, 장어, 상어, 송어, 문어, 고등어, 오징어, 농어, 방어, 우럭, 조우럭, 불락, 어찌, 빗게, 새우, 도께...

4. 식물명

나무(낭)	죽배낭, 서이낭, 녹낭, 조로기(조로지), 먹낭, 감낭, 포도낭(낭), 봉숭가낭(봉숭계낭), 부화낭, 나쓰미깡, 온스미깡, 비대죽, 아주대죽, 살래대죽, 신낭, 풍낭(낭), 죽배기낭, 강남대죽(대죽부리기), 쑥대낭(낭), 사꾸라낭, 먹 ² 실낭, 저밤낭, 동박낭, 누룩낭, 빈둥낭, 찰오람낭, 죄피낭, 개주밤낭, 계낭
잡초(검질)	췌비눔(쇠비눔), 천산췌, 울리, 도췌예, 수, 소앵이, 가시소앵이, 촌앵이, 잔풀, 도췌, 물 ² 작췌, 쓴부루(르)물피, 상수새, 행기췌(행깃췌), 진새, 버마췌(머마췌), 갈장기, 푸개, 제완지, 절완지, 등디췌(췌), 드췌, 고사췌, 똥췌, 갈래, ² 물, 산디, 담쟁이(하늘래기(大), 두루애기(小)), 생부저, 가마귀윗췌(가마구윗췌)
채소(송기)	콩, 양애, 호박, 유, 도라치, 꼬초, 췌우리(새우리), 토란, 반치, 배치, 외, 고란췌(늑디, 돔비, 췌), 강남췌, 두블췌, 췌, 수박, 참췌, 물췌
산채	드름마눔, 들궂, 파뽀레(팻뽀레), 모람, 줄갱이, 탈, 삼동, 꺾뽀췌, 주뽀, 달래, 고사리, 개주뽀, 정동, 뽀췌기, 선달궂(진달래)
해초	전뽀, 매역, 감태, 전각, 가악뿌리(홍합), 고재기, 감태, 민재기, 뽀, 파래, 적, 오갈(게오갈, 촌오갈), 짐, 수두리, 문다드리(문다래기), 해삼, 귀, 솜, 궂뽀

5. 지명

코지	순우리(뽀시터), 중뽀, 물터진게, 도뽀암코지, 왕뽀터, 산여코지, 모코지, 주근대여(여: 밀물·췌물시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지역), 새뽀코지, 두래뽀코지, 술뽀이뽀 궂: 포구(궂가, 바닷가) 궂: 물가 뽀: 편안하게 나온 자리(뽀시터) 코지: 예리하게 튀어나온 자리 ※ 연삼이여: 모술포 사람 연삼이가 머구리 하다 발견한 여로 자리가 많이 난다고 한다.
----	---

수원지	<p>내끼리소, 벼락맞은소, 가시물소(가래현 때 먹던 물), 남동지소, 흑소, 진소, 왕돌메기소, 재배남소</p> <p>※ 강정을 가래리(가래동)로 칭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가래현'으로 불리다가 1800년대에 와서 예래현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전으로만 전해질 뿐 정확한 연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p>
넷도	<p>소도릿도, 가시물도, 동물랫도, 큰넷도, 산물넷도, 활오름넷도, 절인넷도, 곱작도, 악근넷도, 피기 귀 먹는 도, 접지통넷도, 진늬물넷도, 청갱이공넷도, 영만넷도.</p> <p>※ 강정천=가래천; 대가래천, 소가래천.</p> <p>강정천을 기준으로 강정천보다 작은 내: 아근내.</p> <p>강정천을 기준으로 강정천보다 큰 내: 큰내(한내)</p>
동산	<p>망팔동산, 간머리앗동산, 평망동산, 새별동산, 구렁비동산, 큰강정물동산, 메루동산, 구렁빗동산, 예술밭동산, 이청장물동산, 구멍물동산, 전삼루동산, 당동산, 터넷동산, 봉룡동산, 폭낭동산, 활오름동산, 쉬는동산, 산찬밭동산, 종보기앗동산……</p>

6. 속담

1. 금승 물갈기 왜우질지 누다질지 몰라.
2. 각시 아까우민 처갓집 정주목이 아깝나.
3. 갠 체 내무래곡 찬 개 내무래곡.
4. 강정애진 곤밥 주민 울곡 조밥 주민 안 운다.
5. 2진 울리 퍼닥민 전 울리도 벗닥혼다.
6. 구진 풀 배젠 허난 조은 풀 배전.
7. 귀신은 경문에 맥히고 사름은 인정에 맥힌다.
8. 거짓말도 외삼촌 보단 나사.
9. 갈치가 갈치꼴랭이 끊어먹어.
10. 가마귀가 검어도 내땅 가마귀가 아까와.
11. 거짓 동 늪도 개 부끄러워.
12. 굶보당 떡 얻어먹어.
13. 개가 똥을 춤주.

14. 각시 뜨린 날 장모 와.
15. 걷지 못하는 놈이 뛰젠.
16. 과부가 과부 설운 줄 아라.
17. 것보리 서 말만 시민 처가 사릴 무사 허리.
18. 골메긴 가족이 부드러워.
19. 거적문에 도절위 들젠.
20. 곤 사람은 뻬 씨와도 고와.
21. 귀에 당나귀쫓 박앗더냐.
22. 관새에 불 불으듯.
23. 고븐 일 허영 공허라.
24. 것 구숭은 호로자식 술 구숭은 이태백이.
25. 가마귀 구름가눔.
26. 꿩는 물에 냉수 치듯.
27. 근지 말렌 현 말을 문여 ㄹ라.
28. 그날 액은 독 안네 들어도 몰라.
29. 귀 소문 말양 눈 소문 허라.
30. ㄹ느리 먹영 ㄹ느리 싸라.
31. 고냉이 앞에 꿩기 낫져.
32. 가난의 편안으로 사는게 조와.
33. 기다리당 가마귀 알아구리 털어져.
34. 기다 죽은 밧갈쇠나 먹다 죽은 ㄹ랑니나.
35. 굴은 땅에 물 고인다.
36. 공은 닭은 더레 가곡, 꺾인 지신 덜로 잔다.
37. ㄹ르는 노해영 좋고 말은 노해연 안 좋다.
38. 관덕청 설령국도 먹어난 놈이 먹주.
39. 권당 시슬 물은 어서도 두 갓 시슬 물은 꿀꿀이 흘러.
40. 꿀물도 약엿 허민 쓴다.
41. 각시 자랑 반 병신 즈식 자랑 촌 병신.
42. 개천이 글러 소경이 글추.
43. 각씨 구즌 전 생전 원수 된장 구즌 건 일년 원수.
44. 가지 한 낭 브름 잔 날 어서.

45. 고사리왓디 안개 겹듯.
46. 귀 막은 졸 시집 보내듯.
47. 놀이 커도 주지가 으뜸이라.
48. 놈 썩 화에 개 잡아.
49. 나 질룬 개가 내 발톱 물어.
50. 눈은 3슬이고 입은 봄이라.
51. 니 아픈 시중일랑 허곡 눈 아픈 시중이랑 허지 말라.
52. 놈이 상한 병이 나 코감기만 못허여.
53. 내 코가 네자헌 놈이 놈의 말 허여.
54. 늙은인 지팽이가 큰아들보다 나사.
55. 놈의 눈에 피 내우젠 허민 나 눈에 고름 난다.
56. 늙은 처녀 시집 가젠 허난 등창 나.
57. 십년 묵은 홀어명이 고재대감 얻영 가.
58. 눈 낭에 여름 열라.
59. 노름 뒤랑 당허곡 먹는 뒤랑 당허지 말라.
60. 내 집 흥망은 남의 집 처녀 손에 달렸다.
61. 누이 민영 장개 아니가.
62. 놈의 집살이 판장살이 피는 밥.
63. 놈신디 액헌 말 허민 앞 질이 어두와.
64. 늙은 써들 콩 말댄 허라.
65. 내가 밍게 질룬 애기 놈은 애껴 준다.
66. 날 때 굷인 애기 키울 때도 굷어.
67. 떡 간던 덜 가고 말 간던 더 불영 간다.
68. 동녕 아니 주진 족박부터 벌러.
69. 돈은 물에 채질 현다.
70. 동네 처녀 놉땡 놈이 동네 처녀 구허라.
71. 두부 사례 갓당 말이 고마우민 비재기 사온다.
72. 더운 죽에 푸리 놀아 든다.
73. 똥 편 놈이 성 내여.
74. 다십아방 췌기 써는 디랑 가곡 원아방 낭 깨는 디랑 가지 말라.
75. 돈 어신 놈이 장에 가난 큰 췌기 문여 심어.

76. 두루 죽은 송장에 혼 불러.
77. 동네 아지망 떡도 싸사 사먹어.
78. 뚝이 고와사 사위 골리주(골리주).
79. 동남바치엔 허난 개도 안 주꺼.
80. 항상 뚝년이 도적이라.
81. 돈이 어시민 적막강산 돈 이시민 금수강산.
82. 돈 꺾점 돈 잃곡 친구 잃곡.
83. 답답헌 놈이 송서헌다.
84. 덩덩허난 곳으로 알아.
85. 단속곳 풀아도 자식공부는 시켜.
86. 뚝년은 놈의 산천에서 난다.
87. 돈는 도둑은 내분다.
88. 떡이 벨 떡이 잇주 사름은 벨 사름 어서.
89. 두블 주석이 아까와.
90. 독 모가지 부러져도 새벽은 온다.
91. 뚝 한 디 못 골려.
92. 말 존 집이 장 골려.
93. 먹들에도 고망난다.
94. 물려 받은 집 대뱅에서 자구질헌다.
95. 미운 메누리 제삿날사 아파.
96. 물뱅이 창들에 안자도 고치장 타령.
97. 못 얻어 먹는 제사에 감만 부순다.
98. 물이 들면 설사 나고, 서방이 들면 애기 뻘다.
99. 먼디 켄당이 이웃의 놈만 못허여.
100. 무당이 제 곳 못 허곡 점쟁이 제 죽을 날 몰라.
101. 물건 모르건 돈 하영 주라.
102. 물은 건너봐사 알고 사름은 지내봐사 알아.
103. 모로 가나 기영 가나 서울만 가민 좋아.
104. 무쇠도 7람시민 바농 된다.
105. 미운 놈 보컨 술장시 허라.
106. 미운 놈 보컨 셋질 난 밧 벌라.

107. 물 타민 구중생각.
108. 말은 요구리 똥은 싸구리.
109. 메누리 씨앗은 열이라도 아깝고 내 씨앗은 하나도 미워.
110. 메누리 구허쟁 허민 초신 아홉 배 험룬다.
111. 비바리 늙어 가민 7래착 들렁 산데레 오른다.
112. 발 큰 놈이 도적이다.
113. 법 모른 관장은 매로 다스린다.
114. 부지런 부재는 하늘도 못 막아.
115. 북름 부는 날 7루 장시, 비오는 날 소금 장시.
116. 벨 걸음 허당 본 걸음도 잃어.
117. 병어리 속은 어명도 모른다.
118. 밥값보다 고추장값이 비싸.
119. 다십아방이 아방이라, 보리떡이 떡이라.
120. 부모는 죽어 청산에 묻고 조식은 죽어 가슴에 묻어.
121. 사름은 죽어사 막말한다.
122. 쉼뿔도 더울 때 뻘다.
123. 기시런 듯이 드라멘 듯 타령한다.
124. 사돈집광 칩간은 멀어사 좋아.
125. 쉼 노는 디 쉼 놀곡 물 노는 디 물 놀아.
126. 쌍얼챙이 외얼챙이 타령한다.
127. 선 심방 사름 살리곡 선의원 사람 잡나.
128. 산 앞이서 죽 쏜거 산 뒤에 가도 죽 쏜다.
129. 쉼발이 검맹 때여 부러지라
130. 십년 하방에 눈치꾼.
131. 서울 가는 디 눈썹도 무거와.
132. 서울이 무섭덴 허난 과천에서부터 기어가.
133. 삼대독자라도 애기 울음소리 듣기 싫어.
134. 씨집 못간 비바리 살렛다리 흥글어.
135. 사름을 칼로 잡는나 입으로 잡주.
136. 선병자가 의원이다.
137. 손톱에 피나는 건 알고 오장 쭈시는 건 몰라.

138. 씨도 강허민 부러진다.
139. 소문난 잔치보다 지게 송장이 나사.
140. 실픈 맨 맞아도 실픈 음식 못먹어.
141. 사흘 굶영 도적질 안헐 놈 엇다.
142. 씨앗이랭 허문 돌부처도 돌아 앓아.
143. 사름과 물뻥은 시민 쓰곡 어시민 안쓰곡.
144. 사위 국 세 사발 먹으민 가시어멍 눈 벨라진다.
145. 상دت집 가온 비바리 시집 못 간다.
146. 싸와사 사돈 현다.
147. 손거림으로 강알 막듯.
148. 살레 아래서 족순가락 봉그라.
149. 제서 혼 번 안헌 건 놈이 모르곡 벌초 혼 번 안헌 건 놈이 안다.
150. 서픈짜리 물건 니영 들러 불지 말라.
151. 새끼 하영난 쉼 질매 버실 날 어서.
152. 사돈을 보컨 가문을 보라. (사돈이랑 혼컨 가문을 보라)
153. 열 질 물 속은 알아도 혼 질 사름 속은 몰라.
154. 잃은 죄는 열 쉼, 도적은 혼 쉼.
155. 우 좋은 효자는 있어도 알 좋은 효자는 없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156. 약 지레 간 놈이 삼우젓날사 오라.
157. 웃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나.
158. 혼 이불 두 말 허민 두 아버 생긴 주식이여.
159. 오징어 걸음 허지 말라.
160. 울어도 시원치 앓은 디 웃어.
161. 유월 불도 촛당 물러 안지만 섭섭현다.
162. 오죽헌 도깨비 해낮에 나랏.
163. 울멍 먹은 밥은 슬더래 가곡.
164. 애기 날 땀 곤 사람 어서. (애기 낭 곤 사람 이서.)
165. 아장 혼주 성 허여. (아장 흘 일 상 혼여.)
166. 은양산 그들의 강동 칠십 리를 비추와.
167. 우물을 파도 혼 우물 파라.

168. 아장 주영 상 받아.
169. 애기는 건 똥더레 간다.
170. 웨상이엔 허민 쉼 잡아 먹어.
171. '애'허영 다르고 '예'허영 달라.
172. 여자는 높이도 놀폭 낮이도 논다.
173. 여자는 잘 만나민 복이고 잘못 만나민 원수.
174. 원 스주가 굿거든 놈의 첩으로 가라.
175. 양첩 현 놈이 때 굿어.
176. 애기 질롱광 농스집은 모름대로 못 허여.
177. 얼기 쉬운 각시 버리기도 쉬워.
178. 웨바농 코 타지기 쉽나.
179. 우는 사람 입 꼴광 용심 난디 욱 오랴.
180. 입만 7지민 서울 이서방 집도 좇아간다.
181. 양반 가는 던 술상, 쌍놈 가는 던 매.
182. 웨외손지 업고 성손지 결와.
183. 열 놈 먹을 건 혼 놈 못 먹고, 혼 놈 먹을 건 열 놈 갈라 먹는다.
184. 췌 지슨 놈 옆에 잇당 배락 맞아.
185. 장 고리젠 허난 소금부터 고렷저.
186. 중놈 상투 보기보다 어려워.
187. 짐 진 놈이 팡을 좇아.
188. 중놈 제깃값 추림도 유분수가 잇주.
189. 죽은 입으로 내칭 너른 치멧각으로 못 막아.
190. 접빠뿌리 제갓놈 몰라부뜨랴.
191. 췌 놈 성안 감시민 뜯 놈도 너븐 팡은 간다.
192. 중진 애비 잘 돼민 술이 석잔 못 돼민 뺨이 석대.
193. 재산은 이서도 쓸 놈 어시민 헛거.
194. 애기는 나는 날부터 재와.
195. 잔 잡은 팔은 안티레 휘와. (잔 잡은 팔은 안트레 윈다.)
196. 질렛 돌도 연분이 이서야 찬다.
197. 주들 일 없거든 양첩허라.
198. 주인 보태주는 나그네 어서.

199. 좋은 일은 남이 좋곡 궂은 일은 궂당이 좋다.
200. 주식 키와 봐사 부모 공 알아?
201. 적게 먹으면 약주, 많이 먹으면 양주.
202. 잘 돼민 내탓 못 돼민 조상탓
203. 제 버릇 개 주라
204. 주식을 걸 나주 속 나라
205. 중은 중이라도 절 모른 중이여.
206. 죽은 나무에 꽃 피여.
207. 장 든 집이랑 가곡 말 든 집에랑 가지 마라.
208. 잘 살아도 내 팔자 못 살아도 내 팔자.
209. 죽을 놈이 혼 배에 탄다.
210. 죽은 사름 원도 푸는데 산 사름 원 못 풀어.
211. 조천관만 가민 껍(칙) 입도 맛 좋아.
212. 걱정 반찬에 상발 무너져.
213. 잘 하여도 혼 구승이 못 하여도 혼 구승이
214. 좁쌀만이라도 살 메가 이시민 놈의 집 살이를 무사 히리.
215. 집이랑 사컨 이웃을 뺑 사라.
216. 장 여신 잔에 사위가 국 말텐.
217. 정성이 과허난 한식에 사둔집이 과세 갖드라.
218.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웃은 새웃이 좋아.
219. 첫술에 배 부르라.
220. 처녀가 애기 배도 흘 말이 이서.
221. 체면쟁인 굶어 죽곡 먹는 놈만 슬져.
222. 칩도 불리부터 견어가야 험다.
223. 췌말은 중 부릴 팔자에 난다.
224. 큰 굶 혼 집에 저녁 쌀 업서.
225. 팔자가 구지민 산짓물에 가도 궁근팡에 안자.
226. 탕약에 감초질 허지 말라.
227. 후에 난 불이 무서와.
228. 흑 떼레 갖당 흑 불이고 온다.
229. 행실 배우렌 허난 흠어멍 집의 궂 끄서들여.

230. 혼 잔 먹은 게 두 잔 먹은 체.
231. 흥이 어시난 메누리 다리 흰 것도 숭(흥)이더라.
232.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고망 이서
233. 혼 집에 살아보고 혼 배를 타봐야 그 사람 속을 알주.
234. (술) 혼 잔 먹으면 웨조캐 밧 사줄 생각이 난다.
235. 현 싹도 짝이 이서.
236. 혼 배속에 새끼도 아롱다롱 현다.
237. 흥애비 3년에 니 서말, 흥어멍 3년에 은 서말.
238. 하루 굴문 건 모르고 하루 버순 건 놈 아라.
239. 흥년에 애비는 굶어 죽곡 애기는 배 벨라정 죽어.
240. 효자보다 악처가 나사.
241. 한강 물죽박이나 머근 놈이나.
242. 후불 낭그르 눅히 베여.
243. 하늘이 높아도 땅에 떨어져.
244. 한 즐리에 양석 싸도 송사한다.
245. 호박에 침질ㅎ듯
246. 호랑이 굴에 무사 드러.
247. 한강물에 돌 드리치듯
248. 터렁 몬지 아니 날 놈 업다.
249. 트든 독이 꼬기옥ㅎ고 벳긴 개가 삼십 리 득라.
250. 콧대에 바늘 세운 놈 풀 편날 어서.
251. 큰 쉼 큰 쉼 흥명 출 안이줘.
252. 처가집 과세 도실낭꼳 피여사 간다.
253. 천 양짜리 집터 만 량짜리 물호.
254. 초상 상제 널 보듯.
255. 창웃은 벌어 입어도 절하기 싫어.
256. 초상집에 풋죽 드러가듯.
257. 족아도 아지망이다.
258. 장병에 효자 업서.
259. 제 밧 제가 물지.
260. 찍글레기 속에 단장캐비 이서.

261. 찍세기에 용갱기 감고 어린 각씨 달레레 간다.
262. 지름질에 양석 싸랴.
263. 절놈이 절 알아마취.
264. 질이 아니건 견지 말라.
265. 지렁이도 드디민 구기역 현다.
266. 엄지 손가락 귀에 안 드러가.
267. 여자 잘 만나민 복, 못 만나민 원수
268. 양쪽 말을 들어봐사 송사^ㅎ주
269. 에무한 말 ^ㅎ민 뱃난날 베락 마자.
270. 이웃집 메누리 흥이 하다.
271. 웨손지 췌는 이 막개 췌라.
272. 이벙 문세도 깡문다.
273. 인삼이 닷말이라도 아니 살아나.
274. 왕벌집 거시지 마라.
275. 언징에 천징 얻어.
276. 여든에 죽어도 방애동토에 죽나.
277. 오름은 오르닥지 노파.
278. 삼사월에 난 애기 저녁 때 인사해.
279. 십시일반이주.

7. 인체명

- (1) 얼굴-양지, 귀(귀똥배기, 귀아지), 불친머리 : 귀아다리
- (2) 눈-눈망둥이, 눈까리
- (3) 입-아가리, 주둥이
- (4) 목-모가지, 야개기, 모감지
- (5) 배-배뽕지. cf. 배꼽(배또롱)
- (6) 허리-즌둥이
- (7) 엉덩이-잠지패기
- (8) 다리-정쟁이, 앞성무늬(무릎 아래), 귀말이뽕(복사뽕)
- (9) 겨드랑이-적쟁이

(10) 등-등땡이, 등따리

(11) 손가락-엄지, 검지(안주애기), 장지(상손가락), 약지(노내니), 새끼

※ 제보자 : 김선녹(남. 83세)

윤경로(남. 73세)

김춘생(여. 77세)

고시홍(남. 65세)

고원년(여. 79세)

고춘산(여. 85세)

民 謠

지도교수 : 허남춘

지도보조 : 양영길 정용문

반 원 : 김보영 (3) 김영혜 (3)

김선정 (2) 문석호 (2) 강성운 (2)

강경호 (1) 김은영 (1) 양진수 (1)

목 차

- I. 조사 경위
- II. 제보자
- III. 조사 내용
 - 1. 노동요
 - 2. 의식요
 - 3. 타령요
 - 4. 동요

I. 조사경위

제1일 (8월 5일)

학교 본관 앞에서 선생님들의 격려를 받으며 10시 40분에 강정으로 출발하였다. 전학년이 함께 하는 조사가 이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다짐이 우리들의 뇌리를 스쳤다. 버스 안에서 조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11시가 넘어서 강정 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교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천막을 쳐서 2박3일 동안 생활할 공간을 만들었다. 반별로 짐을 풀고 간단한 점식 식사를 마친 뒤 1차조사 준비를 하였다. 각각 분담을 하여 일을 처리하고 카세트·노트 등을 들고 제보자를 찾아 노인 회관에 갔다. 그곳에서 추천을 받은 김축생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다. 그러나 무척 연세가 많으시고 편찮으셔서 소리를 못하실 형편이었다. 어쩔수 없이 사전 답사 때에 추천을 받았던 고화순 할머니 댁을 찾아가다가 마을 입구에서 모여앉아 마늘을 까고 계시는 어른들을 만났다. 조사자들의 소리 권유에 쑥스러우신 듯 부르지 않으시다가 주위 분들의 권유에 마늘을 까면서 부르셨다. 고화순 할머니, 강화봉 할머니, 고복선 할머니가 선소리·후소리로 나눠 “사대 소리” 등을 불러 주셨고 “애기 흥그는 소리” “방애 소리”도 해 주셨다. 아주머니들이 여럿이 계셨기 때문에 농담도 하고 장단도 맞추면서 신나게 불러주셨다. 밤에 노인 회관 나무 앞에서 조용히 다시 불러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4시쯤에 2차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인 회관 앞에 갔다. 노인 회장님께 눈이나 발일할 때 구성진 소리를 잘 하셨던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했으나, 소리를 잘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시며 회장님이 직접 불러 주시겠다고 했다. 김축생 할아버지가 잘 하셨었는데 지금은 94세로 몸이 편찮으셔서 못하시고, 또 제일 잘 하셨던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전에 제일 소리를 잘 하셨던 할머니의 노래를 녹음해 두었다면서 “상여 소리”, “논 다루는 소리”, “방애 소리”, “밭 불리는 소리” 등을 들려주셨고, 어렸을 적에 불렀다는 “말 잇기”도 불러주셨다. 그리고 회장님께서서는 후소리는 같지만 선소리는 부르는 사람마다 틀릴 거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저녁을 먹고 밤 9시쯤에 낮에 약속했던 할머니들과 회관 앞에서 만났다. 준비해간 음료와 과자를 먹으면서 낮에 못했던 소리를 청해 들었다. 할머니들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르려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잊어버린 것도 많아서 끝까지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셨다. 강화봉·고화순·최순란 할머니들께 강정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으면서 많은 노래들을 채록했다. 학교로 돌아와 깜깜한 천막 안에서 손전등을 켜 놓고 오늘 일정을 정리하고 조사 경과를 보고

한 후에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제2일 (8월 6일)

오전에는 논일에 관련된 민요를 채록하고, 오후부터는 해안가에 가서 “뱃노래” 등 바다와 관련된 민요 등을 조사하기로 하루 일정을 잡았다. 아침 식사 후 조사내용을 정리하다가 10시쯤에 윤두형 할아버지가 소리를 좀 하신다기에 댁으로 직접 찾아갔다. 윤두형 할아버지의 부인되시는 김춘생 할머니도 같이 계셨다. 그들은 조사자들을 보자마자 손자하고만 살고 있어 적적했다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 앞에 모여 앉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소리를 청해 들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소리하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다. 숨쉬기가 곤란해서 자꾸 소리가 끊기기도 했다. 할머니한테도 소리를 청해 들었다. 어느 정도의 자료가 수집되자 고마움의 인사를 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오후 2시부터는 어업과 관련된 민요를 채록하기 위해 양영길 선생님의 차를 타고 바닷가 어촌계에 갔다. 그러나 해너 분들은 한 명도 안 보였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남자 어른들께 소리들 청해 들으려고 우리들의 의사를 전화로 여쭙고 찾아 보았다. 그러나 막상 찾아갔지만 “해너 노래”밖에 아는 게 없으며 불러 주시지 않았다. 요즘은 그렇게 노래 부르며 작업하지도 않고 불러도 유행가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전해지는 소리도 없다고 하셨다.

동네 어른들이 추천하셨던 어부 생활을 가장 오래 하셨다는 강세오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덩겁다며 얼음물도 갖다 주시면서 기쁘게 조사자들을 맞아 주셨다. 그러나 정말 아는 노래가 없어서 불러 줄게 없다고 하셨다. 조사자들의 끈질긴 요청에 “뱃노래”를 불러 주셨다. 이제는 예전에 알았던 것도 다 잊어버렸고, 작업할 때도 잘 부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부업을 전수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노래가 전수되었겠느냐고 하셨다. 이 지역에서 배를 직접 만들기도 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배 끌어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냐는 양영길 선생님의 질문에 노래는 불리지 않고 “이영차” 같은 소리만 모았을 뿐이라

II. 제 보 자

1) 윤경노 (남 : 73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노인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윤경노 할아버지는 강정동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신 것 같았다. 강정동에 대한 책자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계셨고, 얼마 후에 또 책이 나온다고 하셨다. 민요는 가사가 전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서 후렴을 바탕으로 할아버지가 사설을 만들어 불렀다고 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하셨고 아시는 것 모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 노래를 많이 하고 싶지만 목이 아파서 끝까지 못 한다고 하셨다. 목소리는 크고 좋았으나 소리를 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노래는 행동을 하면서 불러야 소리가 잘 난다면 노래마다 어떤 행동을 취하셨다. 개인적으로 많은 노래를 기록 정리하여 두고 계셨다.

2) 고화순 (여, 73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해녀 생활을 60세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무척이나 정정하셨다.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정확하셨다. 넉넉하고 포근한 느낌의 외모를 지녔고 노래에 힘이 있고 절로 흥이 나게 부르셨다. 낮에도 많은 노래를 불러 주셨고 밤에 노인 회관 앞에 다시 모였을 때도 적극적으로 불러 주셨다. 뱃소리에서부터 밧 불리는 소리까지 불러주셨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많은 애기와 소리를 해주셨다. 강정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3) 강화봉 (여, 64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19세에 한림에서 시집 와서 강정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할머니

보다 젊으신 분이라 소리도 크시고 노래도 많이 불러 주시려는 적극성을 보이셨다. 무척 쾌활하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4) 김춘생 (여, 77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소리가 좋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갔다. 노인 여회장을 맡고 계셨으며 사투리를 많이 쓰시지 않는 분 같았다. 손자, 할아버지와 셋이서 살고 계셨는데 우리를 매우 반갑게 맞아 주셨고 잘 모르는 노래지만 몇 소절씩이라도 불러 주셨다.

5) 윤두형 (남, 81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김춘생 할머니와는 부부 사이시다. 연세가 많으셔서 목소리에 힘이 없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잘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김춘생 할머니와 선소리·후소리를 주고 받으며 달구소리 등을 해 주셨다. 몸도 편찮으신데 우리를 위해 노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6) 강세오 (남, 61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어부로서는 가장 연장자이신 만큼 “뱃노래”하면 모두 이분을 추천하셨다. 쌍꺼풀의 큰 눈과 둥그런 얼굴이 시원하게 보였고 등치도 좀 있으셔서 건강하게 보였다. 바다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들려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은 일을 할 때 노래를 잘 부르지도 않고 예전에 불렀던 노래도 전수할 사람이 없어서 전해지지 않고, 노래를 못하신다고만 했다. <뱃노래>를 들려 주셨는데 목소리가 굵고 커서 좋았다.

7) 김축생 (남, 94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몸이 불편하고 소리를 못하실 형편이었다. 강정동에서 소리를 제일 잘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 회장님이 2년전에 녹음해 두었다며 김축생 할아버님이 불렀다는 논 다루는 소리와 달구 소리 등을 들려 주셨다.

8) 고복선 (여, 72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나이보다 젊어 보이셨고 노래도 서슴없이 같이 불러 주셨다. 해너일과 발일 을 모두 하신다고 했다. 물질 허는 소리를 행동과 함께 보여 주셨고 주로 후 소리를 맡아 하셨다.

9) 강민자 (여, 74세)

주소 : 서귀포시 강정동

이가 아프고 숨이 가빠서 노래를 잘 못하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할머니가 부르면 다른 사설로 또 부르시곤 했다. 주로 후소리를 부르셨다. 이가 아프시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해서 안타까웠다.

Ⅲ. 조사 내용

1. 노동요

가-1. 《밀레질 소리 ①》

어허여허	밀레로다
밀레로다	밀레로다
노픈 동산	낮춰오멍
어서 어서	밀어 보자
이어도 사나	밀어 보자

공글공글	밀어 보자
노픈 동산	알차오멍
맨들맨들	밀어 보자
이어도 사나	밀어 보자

(제보자 : 고희순)

가-2. 《밀레질 소리 ②》

서르릉 서르릉	밀레 소리
요 동산도	밀어 내자
요 동산올	콜라 보자
서르릉 서릉	밀레 소리
잘도 잘도	콜라진다
어기너랑	밀어 보자
서르릉 서르릉	밀레 소리여
노픈 동산	밀어 보자
재완 해도	못 허키여
어찌 허민	좋을 거니
허당 말민	눔도 웃어
어서 어서	밀어 보자

(제보자 : 윤경노)

가-3. 《밀레질 소리③》

어허여허	밀레로다
노픈 데랑	밀레로다
얇은 데랑	메왕 가멍
어허여어	밀레로다
세로길에	물결치듯
한라산에	구름일 듯

어허여어	밀레로다
고공산에	안개겉듯
설쩍설쩍	밀어 보자
어허여어	밀레로다
무울 좋게	미는구나
무울 좋은	구기 강정
어허여어	밀레로다
풍년 농사	지어 구내
우리권서	식량허자
어허여어	밀레로다

(제보자 : 윤경노, 김축생)

나1. 《씨레질 소리 ①》 - 논다루는 소리

이러 저러러러 - 허 - 이러저러 어허

저 산중에 놀던 썩야	어서 글라 어서 글라
요송치야 저송치야	어서 돌라 어서 돌라
사흘만 오몽 허민	너도 쉬고 나도 쉰다
허당 말민 노미 옷나	어서 글라 어서 글라
실핀일랑 (거린전채)	들랑들랑 걸어 불러
먼디 사람 보기 좋게	부지런히 허여 보자
곤덜 가고 온덜 온다	어서글라 어서글라

(제보자 : 김축생, 윤경노)

나2. 《씨레질 소리 ②》

이렁저렁 - 허 - 이러저러 허 -

요송치야 - 저송치야 어 -

어서 돌라 어서 돌라 -

씨암툭 걸음으로 어 - 어서 돌라

(제보자 : 윤두형)

다1. <뱃 불리는 소리 ①>

어 러러어 ————— 이뤄러어 —————
 요 뭉생이 저 뭉생이들아 ————— 어 —————
 섬대질 현디 밀어 ————— 내버려두엉
 어 - 러러 - 어힘 - 어려러 - 엉
 어어러 ————— 어려러엉

(제보자 : 윤두형)

다2. <뱃 불리는 소리 ②>

어어 ————— 어헛 어려러어어 - 오호허 - 오
 요 뭉생이들아 - 으허어 어서어서 걸어나 보라 어려어러러어 -
 앞 발자국 뒷 발 발브멍 으허허 불랑불랑 걸어 보자
 이골질 저골질로 오 - 으허어 고분고분 불브나 보저 어려어러어러
 요 뭉생이 저 뭉생이들아 으허어 어느뎌 줄 알았시나 어려어러러어 -
 삼복때만 오멍 허민 저술 들어 죽장 놀멍 먹을거 아니 어려어허어 -
 재근재근 혼저 불방 으허어 너도 나도 재우자 어려어허어
 불브당 봐도 불리당 봐도 으허어 아니 무친 씨가 잇구나 어려어허어
 석꼭 고치 혼저 불방 으허어 어서어서 씨 무치자
 곤덜 가고 온덜 온다 뱅뱅 돌멍 불러나 보자

(제보자 : 김축생)

다3. <뱃 불리는 소리 ③>

이러저러 더러 요 물아
 혼저 걸라 어 ————— 어려러 ————— 러러 ————— 러러
 [요 뭉생이야 어드레 돌아남디 혼디 어멍광 불으라]
 이러 저러 - 러 똥만 빅빅 끼멍 사름 신타레
 발길 허지 마랑 어서 글라 도근도근 불라도 보라
 밝은 큰큰허고 어려러러 - 러 - 어

아이고 요 몽생인 절로 땡글땡글 돌암구나마는
 흔저 강 막앙 오젠 허민 어땡허리 발에 눈은 트꼭
 걸지도 못 허키여 어러 - 러러
 어드레 감사니 그레그레 험어지지 말앙
 도근도근 불라 보라 (청불) 그레 뻘직뻘직 나아감져
 어러 - 러러러러 ————— 어러 ————— 러 —————
 어드레 땡땡 돌아감디 밧을 재기 불라보라
 요 몽생이덜아 어러러러 ————— 어 —————
 요 몽생이 어드레 땡글땡글 허멍 돌암구나마는
 강 막앙오도 못 허키여
 어 ————— 러러 —————

(제보자 : 강화봉)

라-1 《방애 짚는 소리①》

이여동 허라 -	이여동 허라 -
이여동 허라 -	음 - 음 -
이 매 넘언	저 매 가난
당산 메더라	음 - 음 -
이여 이여 -	이여동 허라
이여 이여 -	이여동 허라
어멍 보민	글을 말한다
이여동 허라 이여동 허라	

음 ————— 음 —————

아이고 지천 방애도 못 짚켜

(제보자 : 강화봉)

라-2 《방애 짚는 소리②》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가시오름	강당장치
새골 방애	새골람더라
이여 이여	새골람더라
음 —————	음 —————
술멍냥 방애애	도애냥 절구에
오동퐁퐁	잘도 찢다
이여동 허라	이여동 허라
이 메 너던	저 메 가난
당산 매더라	음 - 음 -
어멍 어신	대로 한질
울래로 가라	어멍 보민
골을	말 한다

(제보자 : 고화순)

라-3. 《방애 찢는 소리 ③》

이여도 흥아	이여도 흥아
꺾망냥 방애	이여도 흥아
이여도 흥아	으음
어느 곳에	대려 호니
이여도 흥아	으음
남방아 찢기	이여 허라
대흘방애	이여도 흥아
대 벌려 놓고	이여도 흥아
이여도 허나	이여도 허라
암쿨방애도	이여 흥아
대 불러 간다	이여 흥아

(제보자 : 김춘생)

마. <고래 7는 소리>

(이여 이여흥 어라)

나 놀래랑 산 넘어가라

(이여 이여 이여 흥어라)

나 놀래랑 물 넘어가라

이여 허라 이어도 허라

말안가민 일도 한다

이여 이여 이여 허라

(제보자 : 강화봉, 고민자)

바1. <검질 메는 소리①>

어기너랑 사대로구나

어기너랑 사대로다

앞 멩에랑 들어나 오라

어기너랑 사대로다

뒷 멩에랑 나고나 가라

어기너랑 사대로다

끝 너른 길 너른 밧디

어기너랑 사대로다

이 질로 가는 사람 구경도 좋게

어기너랑 사대로다

한 유월에 요 검질 메고

어기너랑 사대로다

한 눈팔면 남이 나 곧나

어기너랑 사대로다

어기너랑 사대로다

어기너랑 사대로다

이 사대불령	이 검질 메멘
어기녀랑	사대로다
앞 멩에랑	들어나 오라
어기녀랑	사대로다
뒷 멩에랑	나고나 가라
어기녀랑	사대로다
어디로 가는 사람	보기도 좋게

바-2. 《사대 소리②》

어기녀랑	사대로다
어기녀랑	사대로다
검질 짓곡	골 너른 밧되
어기녀랑	사대로다
굽은 쉼로	여의멍 가자
어기녀랑	사대로다
뒷 멩에랑	나고나 가라
어기녀랑	사대로다
어기녀랑	사대로다
어기녀랑	사대로다
사대로다	요 검질 메영
어기녀랑	사대로다
어기녀랑	요 검질 매영
어기녀랑	사대로다
어기녀랑	사대로다
어기녀랑	사대로다

(제보자 : 고복선)

바-3. <사대 소리③>

어기너랑	사대로다
사대 불러당	요 검질 메라
어기너랑	사대로다
앞 멩에랑	들어나 오고
어기너랑	사대로다
뒷 멩에랑	물러나 가라
어기너랑	사대로다
칠낭? 치	불러졌다
어기너랑	사대로다
검질 밧디	모여 들엉
어기너랑	사대로다
비오는 날에	상제 울듯
어기너랑	사대로다
내 노래랑	강 건너가라
어기너랑	사대로다
검질 짓곡	골 너른 밧데
어기너랑	사대로다
고븐췌로	여의멍 가라
어기너랑	사대로다
산아 산아	영주산아
어기너랑	사대로다

(제보자 : 강화봉)

바-4. <사대 소리④>

어기너랑	사대로다
연대 들어	네도나 많고

어기너랑	사대로다
나머지 일들은	일도나
어기너랑	사대로다
요 노래 불령	요 일도 허자
어기너랑	사대로다
어기여어 등실	잘 넘어간다
어기너랑	사대로다

(제보자 : 김춘생)

사. 《출 비는 소리》

어기너랑 사대로다 ————— 흥아로다 —————
 7·8월 하늬 바람이 건들건들 불어온다
 어 - 허 어 - 허 ————— 영 -
 허 ————— 영 ————— 허 —————
 (청 취 불 능)
 (제보자 : 윤두형)

아-1. 《뱃노래 ①》

영실암을 뒤에 두고 영주 포구를 떠난다 이여도 사나
 이 바다를 건너가서 슬래기를 잡아야 한다 이여도 사나
 이 바다를 건널라니 숨도 차고 배도 고파 이여도 사나
 노를 못 젓는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우리 배는 고기를 많이 잡아 들어간다 이여도 허라
 어서 저라 저어라 저라 이여도 허라
 우리 선왕님이 어질어서 만선됐네 이여도 허라
 들어간다 잘 나간다 이여도 허라
 (제보자 : 강세오)

아-2. 《벵노래 ②》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요 배 타면 어느 바다 이여도 사나
우리가 가리 이여도 사나
요 배는 잘도 간다 이여도 사나
잘도 간다 잘도 간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나 놀래랑 물 넘어가라 나 놀래랑 산 넘어가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우리가 살민 몇 백년을 살덴 말고
막살민 산다 현들 단 팔십년 살을 것을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 배 타건 어느 바다 가련 말고
요 배 것엄 어느 바다 가리야
진도 바다 산골너루 어서 가게 이여도 사나 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제보자 : 고희순)

아-3. 《벵노래 ③》

이여도 사나 허여 이여도 사나
썰물에는 동해 바다 허어
들물에는 서해 바다 허어
올라나 가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
요 바당은 (칭불) 걸렸건만 (으싸) 이여도 사나
산아 산아 높은 산은 한라산
산방산아 낮은 산 이여 사나 이여 사나
잘도 간다 - 아아

(제보자 : 고복선)

아-4. 《벚노래 ④》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죽으나 사나 가난 허영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얼씨년이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늙은 나무 댓돌이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의지허라 의지허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저 산 춤은 늙어 따도 해년마다 못 만나네
저 복많은 이 내야 몸은 해년마다 늙어 가네
늙어나 가네 에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잘 넘어가네 에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우리 배는 잘 넘어가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앞발 노랑 후동 치마 뒷발 노랑 오동 치마
밀물 때는 이 사공아 고물 때는 고 사공아
서간 천에 사시나

(제보자 : 고훈순)

아-5. 《노 젓는 소리 ①》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나 놀래랑 산 넘어 가라 - 아
이여 이여 어-허 이여도 허라
나 놀래랑 물 넘고 가라 - 아

(제보자 : 강화봉)

아-6. 《노 젓는 소리 ②》

이여 사나 - 이여도 사나 - 아
나 놀래로 - 물 부엌 가라 - 아
나 놀래로 - 산 너머 가라 - 아
이여도 사나 - 이여도 사나 - 아

우-리가 살면은
몇 백년을 살켄 말고
막상에 산다 현들
단 팔십년 살을 것을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요 배 타진 어느 바당 가련 말고
진도나 바당 한골으로
어서나 가져 어서나 가져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제보자 : 고복선)

자-1. 《물질허는 소리 ①》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요 물질 허영 돈 벌영
우리-그립던 고향으로 가나 보저
어린 자식 두어 두고
병든 남편 버려 두고
요 물건 잠앙 요 금전 벌영
고향 가진 어린 자식 밥을 주고
병든 남편 약을 주영
어서 가자 어서나 가자
이여 사나 이여도 사나
우리 고향은
전라나 제주도인데
요 고향(청불)
악허고도 모진(청불)
어느냐 누구 내왔더냐
요 다시 혈 영업 어선

해천 영업 요종사 민영
일상 생활 다 버려간다.
이여도 사나—이여도 사나--아
(제보자 : 고훈순)

자-2. 《물질허는 소리 ②》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요 물질 허영 돈 벌영 우리 그림던 고향
가나 보자 이여도 사나
어린 자식 두어 두고
병든 남편 버려 두고
요 물건 잡앙 이여도 사나
고향 가건 어린 자식 밥을 주고
병든 남편 약을 주영 어서 가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우리 사는 고향은 전라도 제주도인데
회천용왕 요정사 믿어
일상생활 다 버려 논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제보자 : 고훈순)

자-3. 《물질허는 소리 ③》

(청불) 사람 섬에나 가게
총각 사람 물에나 가게
우리 성님 가는디랑
메역 (청불) 용종기로
늪의 성님 가는디랑
감테 (청불) (청불)

테왁 박세기 요레착
 물안경을 눈에 쓰고
 고동 생동 쌓였건만
 (칭취불능)
 우리님은 어딜 가고
 편지 소식 한장없다
 갈 때 보난 멀어지고
 올 때 보난 보더졌져
 메역 (칭불) (칭불)
 성금 성금 기여 들민
 삼시 굶영 요 물질 허영
 혼 폰 두 폰 모은 금전
 서방님 술값에 다들어 간다.

차-1. <곰베질 소리 ①>

덤석 방석 일어난 병애
 요 곰비로 마사 보자
 젓 먹은 힘으로
 병애를 두들겨서
 손바닥이 다 봉문다
 풀어져라 해싸져라
 풍년이나 되어 보자
 육칠월 무더위에
 하루종일 요일 해도
 지칠 중도 몰라지고
 고픈 중도 몰라진다
 일락서산 해가 진다
 그만이나 허여 보자

(제보자 : 윤경노)

차-2. 《곰배질 소리 ②》

허어두리 더렁이야
 덕석망석 일어 논 병애
 요 곰배로 묵사 보자
 젓 먹은 이내 기운
 다 내연 두드렷져
 손가락이 다 붕문다
 푸러지라 해싸지라
 요 병댕이 묵사그네
 풍년 농사 지어 보자
 육칠월 무더위에고
 하루종일 요일 해도
 지친 줄도 몰라진다
 일락서산 해가 진다
 그만 저만 하여 보자

카. 《따비질 소리》

탐라 제주	팔소장에	시여 두리 방해로다
늘고 자픈	요 테왓을	시여 두리 방해로다
요 따비로	일러 보자	시여 두리 방해로다
오글 오글	일어나라	시여 두리 방해로다
덕석 망석	멍석 망석	시여 두리 방해로다
엎어지멍	뒗아지멍	시여 두리 방해로다
줄병애로	일어나라	시여 두리 방해로다
내 소리에	일어나라	시여 두리 방해로다
등따리로	내린 땀이	시여 두리 방해로다
발등에	떨어진다	시여 두리 방해로다

저레 가는	아지망아	시여 두리 방애로다
나를 보고	웃지 말라	시여 두리 방애로다
피땀 흘려	지은 농곡	시여 두리 방애로다
너 나 없이	먹고 산다	시여 두리 방애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여 두리 방애로다
서늘 서늘	동남풍은	시여 두리 방애로다
요 내 간장	시르르한다	시여 두리 방애로다
정 이월	부름쌀에	시여 두리 방애로다
하루종일	따비질 해도	시여 두리 방애로다
지치줄도	몰라진다	시여 두리 방애로다

(제보자 : 윤경노)

타. <찍 두드리는 소리 >

어허 두리 돌음 마

(선소리는 전하는 게 없음)

* 멍석 등을 벗짚을 쳐서 만드는데 벗짚을 두드릴 때 불렀던 소리이다

파. <뒹거름 내는 소리>

씨어두리	망개로다
흔번 찍엉	흔 골채씩
두번 찍엉	두 골채씩
일어나라	어허여 일어나
듬뿍 듬뿍	파내어 보자
요 거름은	잘 썩었구나
모래밭에	삼질허듯
요런 날에	요일 허민
누워덤서	떡먹기여

(제보자 : 윤경노)

하. <도리깨질 소리 (마당질 소리)>

어야홍아 어야홍아

요것도 동산 어야홍아

요것도 심고 어야홍아

요동산을 어야홍아

조븐목에 어야홍아

때리고 때려라 어야홍아

앞의 사람 어야홍아

뒤에 사람 어야홍아

솔로질로 어야홍아

때려나 보자 어야홍아

저것도 심고 어야홍아

헤쳐나보자 어야홍아

들이치듯 어야홍아

메워들엉 어야홍아

물러 사고 어야홍아

나아가멍 어야홍아

때려 보자 어야홍아

(제보자 : 강화봉, 고희순, 고민자)

2. 의식요

가-1. <상여소리 ①>

(어허녕차 어허로다)

황천길이

눈감으니

공수레

남가일몽에

노수청산

홀로 가는

다시 못 올

영결 주나

(제보자 : 김축생)

머다더니

황천이로다

공수거하니

부귀영화

험한 길에

저 나그네

길이 온데

들어가고

가-2. <상여소리 ②>

어허녕차

어허녕차

어허로다

어허로다

(칭취 불능)

(제보자 : 윤두형)

나1. 《달구 소리 ①》

어허 달구

어허 - 어 -

삼세번째

사공이랑

역준님네

천초만년

석곽가치

달구로다

들어달구

황당할망정

일심동체

살을 집을

다려줍서

(제보자 : 김축생)

나2. 《달구 소리 ②》

에 - 헤

에 - 헤에어 -

에 - 헤 -

먼디 사람

옆의 사람

에 - 헤 -

다덜 ㄹ치

에 - 헤에 -

적군님들

에 - 헤 -

그만 허민

에 - 헤 -

달구로다

달구로다

달구로다

듣기 좋게 -

보기 좋게 - 에

달구로다

모다듭써

달구로다

힘을 뺏써

달구로다

헐만허다

달구로다

(제보자 : 윤두형)

3. 타령요

가. 《서우젓소리》

아 - 아양 아 - 양 어 - 허양 어 - 허요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아 - 아양 어 - 양 어 - 허요
(청 취 불 능)
물 때가 점점 늦어 나간다
아 - 아양 어 - 양 어 - 허요
들물에는 서해와당 썰물에는 동해와당
(제보자 : 윤경노)

나. 《시집살이 노래》

성님 성님	스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덯데가
아이고 애야	말도 말라
물꾸럭 닭은	남편님에
장타 닭은	시아방에
암타 닭은	시어멍에
죽제비 닭은	시누이에
살자허니	어찌사냐
죽자허니	청춘이요
살자 허니	고생이라
고치장이	맏다헌들
요보다도	더 매울쏘냐
아이고 애야	말도 말라
나의 갈 길이	망망허라

(제보자 : 최순란)

다 - 기타

다-1 <너영 나영>

너영 나영 두리둥실 나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이 밤중에 우는 새는 입 그려 올고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운다

다-2 <청춘가>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 수심이 많더라
우리가 살면은 몇 백년을 살려나
막상에 살아야 단 팔십이러라.

다-3. <노들 강변>

노들 강변 봄버들 힘이 늘어진 가지들
무릉세원 한 마리를 칭칭 동여 메어나 불까
에헤야 봄버들도
푸르르는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가노라

다-4. <박연폭포>

박연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범사야 정으로 연실 감들어든다
에헤이요오 얼싸안고 줌도 좋다
얼라둥둥 내사련가

다-5. <학도야 학도야>

1.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용산에 कै종을 들어봤느냐

흔 소래 두 소래 가고 못오니
인생이 백년 감이 주마 같도다.

2. 동월 춘산에 방초 노은도
서풍 추천에 황엽이구나
제군은 청춘소년 자랑 마시오
어느새 명년 백발 되어 오리다.
이빨에 금니 박은 미친놈들은
하이칼라 금뱃지에 건방지구나
권추담배 대판호저 인력저 타고
노름에 술집에 지출이 퍼 나간다.

4. 동 요

1) 전승 동요

가-1. <애기 흥그는 소리 ①>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서 자랑 허여주져
금동개야 옥동개야 혼저자라 혼저 재왕 겁질 메레 가고
물 져오고 고래 끌고 흘겨아니냐 할마님애기 어서 자랑 허여주져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어서 애기 자랑 허져 [어서 재기 자라]
아니자민 아니되고 저 밧디 겁질도 멜져 한한 허고
아니자민 어평허젠 나단 답답 강산 허영 못살키여
혼저자라 눈만 피롱피롱 뵈리지 말앙
어서 자랑 어서 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허여주져
오줌 샐구나 요 아덜 가달 보난 흘착허영 자도 못허고
허염구나 [확 오줌싸] 아니싸민 아니된다.
눈만 빌롱빌롱 날 뵈리젠 허지말앙 어서 자져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허여주져 혼저 자사 물도 강 저당
저낙 허꼭 어여사 헐겨 아니냐 느네 아방은 놀암젠

오민 몽둥이 들렁왕 또릴거여
 아이고 아이고 어느 때민 혼저키왕 이도 저도 나뉘대로 살아보
 코
 똥이자랑 똥이자랑 [아이고 눈만 빌롱빌롱 헌게 저레 자락 밀려
 부러시문 조암직허다]
 아이고 요 아이 재우당 보난 해는 다 떨어지고 어뎡 허민 좋을
 거니 똥이자랑 똥이자랑 할망도 염치가 잇주. 요 아이를 재와사
 일도 허고 헐건디

(제보자 : 고복순 할머니)

가-2. 《애기 흥그는 소리 ②》

똥이자랑 똥이자랑 우리애기 어서 자라
 나라에게 충신 동아 일가 방상 화목 동아
 동네 어른 (청불) 부모님께 효신 동아
 자랑 자랑 어서 자랑 귀자낭에 귀자동아
 옥자낭에 옥자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살까
 금을 준들 너를 살까 자랑 자랑 어서 자라
 우리 애기 자는 소리 (청취불능)
 늬이 애기 우는 소리 고치 먹고 우는 소리
 성한 여청 우는 소리 (청취불능)
 자랑 자랑 똥이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산천밭되 보물동아
 우리애기 자는 소리 늬의 애기 재운 소리
 자랑자랑 똥이자랑 우리애기 잘도 잔다

(제보자 : 고화순)

가-3. 《애기 흥그는 소리 ③》

자랑 자랑 똥이자랑

금자동아 자랑 자랑
부모에게 효자 동아
나라에게 충신 동아
일가방상 화목 동아
동네에서 우애 동아
금을 주든 너를 사라
은을 주든 너를 사라
우리집에 귀염동아
우리집에 보배동아
자랑 자랑 어서 자랑

우리애기 듬북듬북
단잠 자는 소리
늬의애기 고추 먹고
매와 우는 소리
자랑 자랑 똥이자랑
할망손지 자랑 자랑

(제보자 : 김춘생)

나. 다리 포개어 부르는 노래

〈송사 놀이〉

혼다리 흰다리 개칭 대칭
원인 수수 구월 사월
행정 바티 버디나무
알랑달롱 지궁에 척
송사 왔소 권송사요
이 물이 내바티 들어
조브럭 내브럭 다 빠먹어

똥이 닳말 닳되요

이놈을 쪼까내라

* 다리 남은 사람이 말이 되어 송사 거는 놀이

다. 기타

다-1. 《토끼와 거북이》

1. 여보 여보 거북님 내 말 들어보오
천지간 동물 중에 네 발 가지고
저와 같이 늦은 걸음 처음 보았다
이상타 그대 걸음 어찌 그런가
2. 여보 여보 토끼님 무슨 말인가
그러하면 나하고 경주하려나
여기서 바로 떠나 저 산까지에
누가 먼저 갈까 내기해 보세
3. 깡총깡총 또 깡총 토끼 잠잔다
거북은 쉬지 않고 혼자 갔도다
거북이 토끼보다 먼저 갔도다
자랑 허는 토끼는 어이 늦었나

다-2. 《핑노래》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오니 내가 못살아
자주 남빛 저고리에 청색 옥색 동전에
삼년묵은 그릇바타 어염어염 돌암더니
날잡으러 오는 처사 만근 버섯 귀에 걸고
빈듯버섯 등에 지고 옥칠먹 버섯 손에 쥐고 놀암더라
이만 가민 어떠리요 삼각산에나 올라 보자
삼각산에 올라 집을 이어

대문 불러 올라 집을 이어
샛물 불러 장황아찌 장황위의 너동올려
오호통풍 나무 내여
나무치는 나장내야 빨리올 아 가져
핑 핑 먹고 살아보자

라. 말잇기

라-1. <말잇기 ①>

저 산터레 고박 고박 허는 건 무신 거니
미뻬쟁이여
미뻬쟁이인 쟈다
세민 할애비여
할애비인 등급나
등급으민 쇠질매가지여
쇠질매가진 네 고망난다
네고망나민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우기여
가마우긴 눅뜨다
눅뜨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인 접진다
접지민 갱이여
갱인 볏나
볶으민 엇이여
엇은 불은다
불으민 찹이여

참은 갈랑 간다.

라-2. 《말잇기 ②》

저 산드레 구벽구벽 허는 건 뭐니

밋부쟁이여

밋부쟁인 똬다.

회민 하르방이여

하르방은 등굽나

등구부민 쇠질매가지여

쇠질매가진 네고망난다

네고망나민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귀여

가마귀 늑댄다

늑대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인 접진다

접지민 쟁이여

쟁인 붉나

붉으민 대초여

대초는 든다

들민 엇이여

엇은 흐린다

흐리민 기러기여

기러긴 보리 먹나

보리 먹으민 쇠여

쇠 빨 돋나

뽕 돋으면 강록이여
 강록은 뽕다
 뽕민 배록이여
 배록은 뽕다
 뽕민 개여
 갠 쇠먹나 쇠 먹으면 사람이여

2) 놀이요

가.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 가-1. 미니 미니 미니뽕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우리 우리는 주먹뽕 가위뽕 보자기뽕
- 가-2. 감자에 싹이나서 이파리에 감자
 감자 감자 썰야
- 가-3.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 동 묘 지 으악 공 동 묘 지 으악 으악...
- 가-4. 남산위에 초가집 짓고 예쁜 얼굴로 달려갔더니
 옆집 순이는 시집을 가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그놈의 계집애 두고보자고 누가 이기나 대결해 보자 (가위 바
 위 보)
- 가-5. 아침 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엽서 한 장 써 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말고 석 장이요 구리구리구리 (가위 바위 보)
- 가-6. 사과 사과 새 사과 어머니가 사다주신 새 사과
 영희야 영희야 사과 먹어라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가위 바위 보)
- 가-7.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아이들에게 구박을 받았드래요
 샬바샬바 하이샬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샬바샬바 하이샬바 1995년도 (가위바위보 한다)

나. 《고무줄 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나-1. 월남 마차 타고 가는 캔디 아가씨

(4번반복)

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나-2. 월개 화개 수수 목단 금단 토단 일

나-3. 앞바퀴 뒤바퀴 자동차 바퀴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조수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여기는 서울역 고맙습니다

나-4.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큰가방 속에는 편지 편지 들었죠

아저씨 아저씨 고맙습니다.

나-5. 간질 간질 간질병에 걸렸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 같은건 필요 없다 저리 꺼져라

나-6. 할머니 들어가고 두부 장사 들어가고

색시 들어가고 냄비뚜껑 들어가고

할머니 나가 두부 장사 나가

색시 나가 냄비뚜껑 나가

나-7. 가달이 찢어진다 올라가지 말아라

엄마 엄마 불러 봐도 소용이 없어

엄마는 시냇가에 빠져 죽었네

다. 《줄넘기할 때 부르는 노래》

다-1.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다-2. 엄마 무사 학교 가라

선생님 무사 몇 점 빵점

엄마 무사 빵점 나가라

선생님 무사 몇 점 백점

엄마 무사 백점 나가 놀아라

다-3.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다-4. 또옥뚝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월개 화개 수수 목단 금단 초단 일

라. 기 타

라-1. 《여러명이 손잡고 놀 때》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따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따졌니 따졌니 따졌니

순이 꽃을 따졌다 따졌다 따졌다

라-2. 《머리 작은 아이 놀리는 노래》

○ ○ 야 대머리 깎아라

새색시가 뽀뽀해 준대

라-3. 《다리 포개어 부르는 노래》

두부 장사야 두부 팔아라

얼마 받겠니 10원 받겠다

아유 비싸다 가위바위 보

라-4. 《이빨 뺄 때 노래》

까치야 까치야 헌 니 줄께 새 니 다오

라-5. 첫째 아들 밥 좋아해 밥통에 넣었더니

반찬 달래 아 눈깔 나와
 둘째아들 술 좋아해 술통에 넣었더니
 안주 달래 아 눈깔 나와
 셋째 아들 점도 잘해 점도장에 보냈더니
 못하겠데 아 눈깔나와
 넷째 아들 권투 잘해 점도장에 보냈더니
 얻어맞아 아 눈깔 나와
 막내아들 나이 들어 유치원에 보냈더니
 미팅 한데 아 눈깔 나와
 아 눈깔 나와 아 눈깔 나와
 눈깔 나와 병원에 갔더니 그냥 살래

3) 개사곡

가. 《우리집 강아지》

우리집 강아지는 배뽀록 배뽀록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배뽀록 배뽀록
 그러다가 배 만지면 배뽀록 배뽀록

나. 〈아빠와 크레파스〉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몽둥이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한 대 맞고 뼈졌어요
 두 대 맞고 울었어요
 세 대 맞고 병원 갔어요
 네 대 맞고 하늘나라 뽕

다. 《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간질 할아버지 할머니
 바반짝 바반짝 빛이납니다
 하늘에 앉았더니 발이 가려워

옹아 옹아 옹아 나는 죽었다

라. <징글벨>

옛날 옛적에 꼬마 신랑이

첫 날 밤에 첫 날 밤에

오줌을 싸네

난 몰라 난 몰라

집에 갈테야

엄마 찌찌 먹으러 집에 갈테야

서방님 서방님 가지마세요

내일 아침 누룽지 굶어드릴께

說 話

지도교수 : 김 병 백

지도보조 : 고 경 립 김 동 운 현 승 환

반 원 : 강희숙(4)

오유선(3) 유미연(3) 장예배(3)

김선희(2) 김양미(2) 김창언(2) 김혜진(2)

박소영(2) 이세연(2)

김순애(1) 백승주(1) 윤미란(1)

목 차

- I. 第一 江汀
- II. 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
- III. 부첫돌 이야기
- IV. 靈驗 이야기
- V. 사돈이 죽으면 팔죽 썩 간다
- VI. 총명한 아이
- VII. 좌우방 이야기

조사자들이 강정마을을 찾아갈 무렵에는 날씨가 유난스레 더웠다.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윤정로)과 어른 몇 분을 찾아뵙고 얘기를 들을 때도 너무 더웠는데 선풍기 한 대를 내어 주셔서 무지 고맷다.

다음 날에 이어진 현지조사에서는 노인회관 앞에 있는 풍당의 시원한 그늘에서 마을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얘기들을 즐겁게 들을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얘기하시는 것을 꺼려 하시더니만 소주 한 잔을 베풀어 얘기가 시작되자 술

술 막힘 없이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기록은 이미 알고 있는 설화는 표준어로 정리하고, 문법적 오류나 문장의 모순, 기타 애매한 표현일지라도 일단은 원형을 그대로 살려 기록한다.

I. 第一 江汀

옛부터 先人들은 一江汀, 二번내*, 三도원**이라 하여 江汀里를 指稱할 때 第一江汀이라 불려왔다. 그것은 江汀里의 自然環境이 島内에서는 第一 사람 살기 좋다는 옛 사람들의 共通된 判斷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卽 農業을 爲主로 하던 옛 시대에는 農事의 成敗를 가름하는 것이 土質과 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江汀里에는 물이 많고 논이 넓어 쌀이 많이 生産되며, 토질이 좋아 다른 農事도 잘 될 뿐만 아니라, 江汀里 앞바다에서 海産物을 많이 거둬드릴 수 있었으므로, 옛 어른들이 島内에서 第一 살기 좋은 곳으로 江汀里를 꼽아서 第一江汀이라 불렀던 것이 아닌가 보아진다. 옛부터 “江汀 애기는 곧밥(쌀밥)을 주면 울고 조밥을 주면 아니 운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江汀에서 쌀이 많이 生産되어 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鄉土 江汀〉 尹京老 編著 1

II. 날개돋힌 아기장수 설화

지금부터 約 150 年前 이야기이다.

江汀入住 金氏 最先代인 金成南의 七代孫인 金聖信과 그의 妻 朴氏間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들을 키우면서 그 부모는 두개의 아기구덕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기를 각각 다른 아기 구덕에 눕히고 그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기들이 서로 바뀌어진 아기구덕에 누워 있었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므로, 그 어머니가 이상히 여겨

* 안덕면 화순리

** 구좌읍 행원리

하루는 어디에 외출하는 척하고 나간 후에 살며시 창밖에서 창문구멍으로 방안 안을 살펴보니 두 아기가 날아다니며 천정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노는 것이었다. 이 모양을 본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기들의 옷을 벗겨 보니 그들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안 그 부모는 크게 걱정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기들을 죽여 버리고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근심에 쌓인 그 부모는 祖上의 墓를 잘못 모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의심하여 어느 地官과 의논했더니, 그 地官이 지금의 예래동 근처에 있는 軍山에 묻혀있는 선조의 묘를 파 보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先祖의 墓를 移葬하기 위하여 墓地를 파헤치는데 아무리 파헤쳐 보아도 屍身을 모신 棺이 나오지 않다가 열 두 광중 깊이를 파헤쳤을 때 墓地 속에서는 시신이 황소가 되어 앞발은 꿩고 뒷발은 일어선 형체였으며, 이때 비둘기 두마리가 나와 남쪽 바다 가파도 쪽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 때 안개가 뿌옇게 끼였다가 개이고 보니 체신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 그 부모가 집에 돌아와 보니 쌍둥이 아기는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한다. 얼마 후에 軍山의 그 墓地에는 한림읍 금악리 朴氏 家內에서 墓를 써 그 집안이 잘 되었다고 한다.

〈郷土 江汀〉尹京老 編著 1984

##〈제보자1〉

김성진(남. 83)

Ⅲ. 부싯돌 이야기

(조사자 :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줍서게)

(제보자 : 굳거든¹⁾ 들으라).

그 하트방이 7대조 주계. 이제 7대조 같으면 50씩 해서 350년 될 꺼라. 그

1) 말하거든

때 우리 선조가 가래동에 살게 되었주. 영웅이랄까, 잘난 하르방이라 철종장군이란 비석을 세웠주마는. 그 하르방 어떻게 해서 잘났나 할 것 같으면 눈살이 누게²⁾ 모양으로³⁾ 좋아. 멍석에 공석 행 널거든 닭이⁴⁾ 왕⁵⁾ 먹젠 헐 때 우리 하르방이 눈살 찌프리민 닭이 꿈쩍 못 해주게. 또 섬반질이⁶⁾라고 이서신디 글로 어떤 사람이라도 지나가당 우리 하르방이 방에 앉아동 문만 열민 몰탄⁷⁾ 사람이 떨어져서. 그렇게 눈살이 좋은 하르방이라.

마을에 이제는 사람이 많이 살주마는 그때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았거든. 그때 강정마을 같으면 일로⁸⁾ 영⁹⁾

(제보자: 팔을 펼쳐 손짓한다)

올라강 하원하고 도순하고 법환하고 월평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라. 향회 모양으로 모다 아정으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디가 네끼리소라고 이제 위에서 먹는 물나는디 원조주게. 네끼리소, 대소 여러 개가 이신디. 우리 하르방이 강정 마을 동산에서 회의를 헐 때

(제보자: 니넨 모를 꺼여)

(조사자: 뭐 마섬?)

부들이라고 굵직한 썩은 낭¹⁰⁾에다 록 허영 불나게 허는 거. 부들이라고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막 센 돌이라. 노랑허매.

불이 막 어려울 때 우리 하르방이 진시헐 때 아정강¹¹⁾ 하나씩 태웠거든. 거기 이신 사람들이 그거 어디 이십디강. ㄹ르차 줌썩, ㄹ르차 주믄 우리도 캐당 쓰쿠다. 경허니까

2) 누구

3) 모양으로

4) 닭이

5) 와서

6) 길 이튿

7) 말탄

8) 이리로

9) 이렇게

10) 나무

11) 가지고 가서

(조사자 : 소주를 한잔 따라 드린다)

(제보자 : 아이고, 우리가 대접해야 할 건디)

경행 우리 하르방 말씀이 이것이 나라에서 알게 되면 진상 바치라 험다고. 옛날에 진상이라면 세금이주게. 공출허렌 말이주. 우리 하르방이 많이 안 난다고 알릴 수 없다고 허멍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주 지금도 어디에 그런 부들이 잇을지.

IV. 靈驗 이야기

(제보자 : 니네 젊은 아이덜 잘 들으라)

집이 이녀 제사거든. 제사라부난 큰 아들이영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싸움만 드러 햐서. 에이 패쌌하다고. 저녁 먹으래 강 싸움만 햐시난 화가 나거든. 경헌디 죽은¹²⁾ 아들 집에 강 보난 채위에 팔죽인지 뭔지 죽 쭈다 남은게 이서. 제서 먹엉 가노라고 그것을 죽은 아방 친구한테 ㄱ랏거든¹³⁾. 나강보난 그 놈덜 시께¹⁴⁾도 안허고 드러 싸움만 햐서라. 죽은 아들 집에 강 보난 죽이 이서 그네 훗실¹⁵⁾ 먹엉 가노랜 경 ㄱ랏거든. 뒷날 그 하르방이 아들네 집에 강 보난 그대로 아들들이 대판 싸움만 햐서. 니네 아버지가 꿈에 나한테 이렇게 ㄱ라라. 시껏날 웬 싸움들이냐고 야단한 모양이라. 뒷케¹⁶⁾는 싹지도 안하고 시께도 잘 햐거든. 다음 또 그 하르방 꿈에 오늘은 오랑 보난 싹지도 안 하고 췌기¹⁷⁾도 먹고 혼제해 칭 고맙다고.

(제보자 : 제난 니네들 시집 가그네 시께 때 절대 싹지 말라)

##〈제보자2〉

강창규 (남. 78)

12) 작은

13) 말했거든

14) 제사

15) 조금

16) 다음부터는

17) 고기

V. 사돈이 죽으면 팔죽 썬 간다

옛날 인종 때에 유신이라고 하는 분네가 이렇게 벗하고 놀 때는 인종의 신하가 되고 또 눈을 감으면¹⁸⁾ 저승의 신하가 돼나신디. 벗하고 장기를 두다가 아슬쩍 졸리거든. 졸리며는 저 세상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건드려 보지 못하니까 가만히 졸린냥 내붙어서. 깨나니까 벗이 “그렇게 오래 잠을 자느냐”고. 아닌게 아니라 저 뒷턱에 김부기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기한이 백번 넘어가도 잡아갈 사신이 없다고. 게서 우리집에 부름시하는¹⁹⁾ 초란이를 내 빌려 줄 테니까 잡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초란이가 그러면 죽어서 저승사자가 될 말이나” 유신은 “그렇주” “그럼 지가 어떻게야 잡아올 수 있느냐”고.

초란이가 왜 초란이나 하면 사름이 용기없이 놀래곤²⁰⁾ 허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에이 초란이 같은 새끼라고 하지 않허여?

(조사자 : 그제서야 우리 모두 아~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경헌 사람인데 불러가지고 오계시리 해서 “말들으라고. 너는 사약을 느라서²¹⁾ 백여서²²⁾ 죽게 일주일 동안을 내내 지키지덜 말고 최소한 내가 가려 볼 테니까. 죽진 않을 테니까. 영구히 죽는 것이 아니니까. 임시적 죽어서 처사가 되어서 아무 사람 잡아다 두고 깨어날 것이니 그렇게 알라” 하니 대신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어서. 해서 울지도 말아라 험다고. 그때 사약을 느라서 먹어 손에 쇠막대를 꿰기 싫어하고 해서 죽었는데 초란이가 강 보니까 어염으로 탕재낭을 다 심고고 백매가죽을 다 그레 걸치고, 흰 개, 흰 덧 다 질루고²³⁾ 해서 구신²⁴⁾은 그것이 사블르브 정지해서 들어동도 못 허게 된 장치를 허고 이서.

-
- 18) 감으면
 - 19) 심부름하는
 - 20) 날래고 (날쌌고)
 - 21) 내려서
 - 22) 먹여서
 - 23) 기르고
 - 24) 귀신

경헌디 주위를 빙빙 돌아 댕기당²⁵⁾ 보니까 어떤 굽닥헌²⁶⁾ 처녀가 손을 내밀 거든. 허니까 손을 푹 잡으니까 잡아끄성 들어가신디 그 궁지로 들어가는디 어디 강 애기 헐 디 어성 변소잔에 강 굽앗거든²⁷⁾. 굽아서 일주일 만에 아 그 놈이 나타난덴 말여. 나타나니 아 쇠막대기로 대가릴 조지니까 죽지 않았겠어. 죽을 때에 그 초란이가 살아났어. 살아난 것을 뭐라고 허는고 허니 “아이, 쇠막대기로 대가릴 조지니까 대번 죽드라” 이렇게 허면서 살아났는데 초란이는 핏을 무서이 여기느냐 하면 팔죽을 무서이 여겨. 그러니까 초란이가 부름시허다가 죽어시니까 이것이 정채어신 노릇을 헐다고. 이것이 죽은 관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보아, 그 놈을 당최헌다고 해 가지고, 팔죽을 써서 다 노봐드리고 그 방비허느라고 시방까지 유래해서 사돈 죽으면 팔죽 써 간다고 헐다고.

#<제보자 3>

김성진(남.83)

VI. 총명한 아이

옛날에 정정승이라고 요새 같으면 좌의정, 우의정 허는 정승 대감이주게.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뜰방에서²⁸⁾ 자는디 청룡이 방안을 빙빙 도는 거라. 깨 어낭 보난 꿈이거든. 이제는 뜰보고 오렌 행 간밤에 너 방에 이런 일이 잇으니까 별일이 잇겠다고. 무사히 편하게 허라고. 아방이 경 명령허거든. 아니나 다르카 그 날 저녁에 자시 쯤 되니까 어떤 놈이 뜰을 겁탈행 나가 불거든. 경 행 14개월 지나니까 아이를 나서. 아이 배난 용이 오랑 영 해신난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고 대감은 기대를 해신디 낡앙 보난 까맣게 불 상 어신거라. 대감은 기대를 해신디 용새끼를 난 저주게. 이놈의 아이가 평생 막대기영만 댕경. 막대기를 내불지 안헤여.

25) 다니다

26) 고운

27) 숨었거든

28) 뜰방에서

하르방이 가지 말랜 해도 이놈의 아이가 계속 따라 다녀. 회의할 때도 하르방 옆에만 앉거든. 하르방이 오죽 창피해시크나. 경행 그 놈이 7살이 나던때라. 그 하르방은 우의정이나 좌의정 쯤 되는 정승이라. 하루는 그 동네 똥이신 집에서 잔치를 허는디 사위가 어떤 사위냐 하면 대국 사위였주. 그때 대국이런 허민 중국이주.

(조사자 : 그 똥이 시집가는 거 마썸? 애기어멍?)

(제보자 : 아니게, 정승친구)

정승이 쟁피해서 데려가지 말젠해도 손주가 따라오거든. 친구 잔치집이. 경행 돌아갈주게. 이 놈 새끼는 드러 먹고 하르방들은 좀좀행 이신디 주악주악 허멍 하르방 옆에 앉앙 하르방보고 "인사시킵서게. 대국신랑이런 해신디 인사도 안 반앙 가쿠광" 하고 까랐거든. 경행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국신랑이 "미안 허지만 대가리 아광 못 나오쿠덴" 하고 할아방신디 까는 거라. 게난 손자가 대가리 아광 죽어지민 천막이라도 인사허렌 헉서. 인사하는거 뭐 경 어려운 거 나고.

이 말 들은 대국신랑이 마지 못해서 나오는디 제일 끝에 있는 막대기 짙은 손주한테부터 절을 해서. 절할 때 손주가 "본색이출" 하니까.

(조사자 : 본색으로 나타나라는 말이죠?)

(제보자 : 어, 그 거)

그 말 하니까 절하는 신랑이 황구렁이가 돼어 대가리를 빙빙 돌리자 손주가 칼을 빼어 손을 확 베어서 갯곳낭 가져다가 사르라고. 경행 사르고 신부는 어제녁 밥 잤으니까 저 요강 아래 구멍 뚫은 것애다 갯곳낭으로 췌우라고. 췌왕 경행 1시간 지난 후에 그 갯곳낭 췌운 요강에서 옷 갈아입당 보난 존존헌 숨구멍 새끼 8개가 신부 강알로 빠지는 거라. 거기 잇던 사람들이 까는 말이 이것을 그냥 내볼면 8도에 하나씩 떨어져서 우리 민족이 돼연, 죽을 민족이 될 거라고. 이걸 잡아 보내노라고. 경허난 저 꿈에 청룡 낀 것도 우리 나라를 도우쟁 헌거 주.

경헌디 주위를 빙빙 돌아 댕기당²⁵⁾ 보니까 어떤 굶다헌²⁶⁾ 처녀가 손을 내밀 거든, 허니까 손을 푹 잡으니까 잡아끄성 들어가신디 그 궁지로 들어가는디 어디 강 애기 헐 디 어성 변소간에 강 굶앗거든²⁷⁾. 굶아서 일주일 만에 아 그 놈이 나타난덴 말여. 나타나니 아 쇠막대기로 대가릴 조지니까 죽지 았앗겿어. 죽을 때에 그 초란이가 살아났어. 살아난 것을 뭐라고 허는고 허니 "아이, 쇠막대기로 대가릴 조지니까 대번 죽드라" 이렇게 허면서 살아났는데 초란이는 뺨을 무서이 여기느냐 하면 팔죽을 무서이 여겨. 그러니까 초란이가 부름시허다가 죽어시니까 이것이 정체어신 노릇을 헐다고. 이것이 죽은 관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보아, 그 놈을 당최헌다고 해 가지고, 팔죽을 써서 다 노파드리고 그 방비허느라고 시방까지 유래해서 사든 죽으면 팔죽 써 간다고 헐다고.

##〈제보자 3〉

김성진(남. 83)

VI. 총명한 아이

옛날에 정정승이라고 요새 같으면 좌의정, 우의정 허는 정승 대감이주게.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뜰방에서²⁸⁾ 자는디 청룡이 방안을 빙빙 도는 거라. 깨 어낭 보난 꿈이거든. 이제는 뜰보고 오랜 행 간밤에 너 방에 이런 일이 잇으니까 별일이 잇겿다고. 무사히 편하게 허라고. 아방이 경 명령허거든. 아나나 다르카 그 날 저녁에 자시 쯤 되니까 어떤 놈이 뜰을 겁탈행 나가 붙거든. 경 행 14개월 지나니까 아이를 나서. 아이 배난 용이 오랑 영 해시킨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고 대감은 기대를 해신디 낱앙 보난 까맣게 불 상 어신거라. 대감은 기대를 해신디 용새끼를 난 거주게. 이놈의 아이가 평생 막대기영만 댕경. 막대기를 내불지 안해여.

25) 다니다

26) 고운

27) 숨었거든

28) 뜰방에서

하르방이 가지 말랜 해도 이놈의 아이가 계속 따라 다녀. 회의할 때도 하르방 옆에만 앉거든. 하르방이 오죽 창피해시크냐. 경행 그 놈이 7살이 나던 때라. 그 하르방은 우의정이나 좌의정 쯤 되는 정승이라. 하루는 그 동네 툇이 신 집에서 잔치를 허는디 사위가 어떤 사위냐 하면 대국 사위였주. 그때 대국이런 허민 중국이주.

(조사자 : 그 툇이 시집가는 거 마썸? 애기어멍?)

(제보자 : 아니게, 정승친구)

정승이 쟁피해서 데려가지 말젠해도 손주가 따라오거든. 친구 잔치집이. 경행 돌앙 갖주게. 이 놈 새끼는 드러 먹고 하르방들은 쯤쯤행 이신디 주악주악 허멍 하르방 옆에 앉앙 하르방보고 “인사시킵서게. 대국신랑이런 해신디 인사도 안 반앙 가쿠광” 하고 까랏거든. 경행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국신랑이 “미안 허지만 대가리 아팡 못 나오쿠덴” 하고 할아방신디 까는 거라. 게난 손자가 대가리 아팡 죽어지민 천막이라도 인사허렌 험서. 인사하는거 뭐 경 어려운 거냐고.

이 말 들은 대국신랑이 마지 못해서 나오는다 제일 끝에 있는 막대기 짚은 손주한테부터 절을 해서. 절할 때 손주가 “본색이출” 하니까.

(조사자 : 본색으로 나타나라는 말이죠?)

(제보자 : 어, 그 거)

그 말 하니까 절하는 신랑이 황구렁이가 돼어 대가리를 빙빙 돌리자 손주가 칼을 빼어 손을 확 베어서 갯곳낭 가져다가 사르라고. 경행 사르고 신부는 어제 녀 밤 잤으니까 저 요강 아래 구멍 뚫은 것애다 갯곳낭으로 썩우라고. 썩웁 경행 1시간 지난 후에 그 갯곳낭 썩은 요강에서 옷 갈아입당 보난 존존헌 숨구멍 새끼 8개가 신부 강알로 빠지는 거라. 거기 잇던 사람들이 까는 말이 이것을 그냥 내붙면 8도에 하나씩 떨어져서 우리 민족이 돼연, 죽을 민족이 될 거라고. 이걸 잡아 보내노라고. 경허난 저 꿈에 청룡 낀 것도 우리 나라를 도우쟁 현거 주.

VII. 좌우방 이야기

어느 대감집에 아들이 혼인할 차례가 돼서 혼인을 시켜신디 며느리가 아주 활발하고 이때서, 하루는 아들이 출타를 하게 돼서 며느리는 혼자 지내게 됐주. 이 사실을 안 어떤 놈이 며느리를 탐하고 싶어서 밤에 며느리가 자는 방에 들어간 범하려고 해신디 며느리가 완강하게 반항했 그놈이 며느리를 죽연, 죽여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쳐주.

며느리는 매일 아침 그 대감신디 문안인사를 드려서, 해신디 이 삼일이 지나도 문안인사도 없고 보이지도 안해부난 대감이 이상히 여겨서, 경행 며느리 찾으레 며느리 방에 가신디 죽연 이신거라. 대감이 놀랑 밖으로 나왔주.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걸 봐서, 대감이 사람들신디 며느리가 죽었다고 까저든. 경헌디 사람들은 대감의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며느리를 범하려다가 며느리가 반항하니까 죽었다고 생각했 관가에 고발해 붙어서, 사또는 대감을 호송하려행 대감을 끌어 앉혔 “이 쾌심한 놈 네가 좌우방에 들어가 범하려다 좌우가 거부해서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거든. 경허민 대감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라. 아무리 다그쳐도 수긍하지 않으니까 대감을 그대로 옥에 가둬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옥에 갇힌 걸 알았주게, 사또가 아들을 불렀 “아버지가 무죄라는 증거가 나오면 사면해주겠다”고 굳거든. 경해도 아들은 “저희 아버지는 죽어도 경 혈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거든. 경해부난 사또는 대감을 계속 옥에 가된 심문을 해서, 경헌디 이상하게 그 고을에 사또가 부임하여 대감신디 심문하민 사또가 죽어, 그렇게 해서 죽은 목사가 여럿 잇었주. 동네 사람들은 상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서.

그 후로 한 사또가 부임해신디 그 사람이 잠을 자는디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남 “너 자느냐? 너도 명판단을 못하면 죽는다”고 까는거라. 경행 흰 기에 석 삼자가 그려진 것을 내보이고 사라져서, 사또가 그 뜻을 풀이하는데 흰 기에 석삼을 백기삼이라고 풀이했주게. 뒷날 사령들을 불렀 물어보기를 “이 고

을에 백기삼이라는 자가 있느냐?”고. 사령들이 있다고 하니까 잡아오라고. 백기삼을 잡아와서 심문하니까 자기가 했던 곧는 거라. 경행 일이 해결되 대 감은 풀려나고 백기삼은 사형당했주.

信 仰

지도교수 : 허 춘

지도보조 : 문무병 이완중

반 원 : 오진숙 (3) 송현주 (3) 김정렬 (3) 오운선 (3)

이영웅 (2) 이현정 (2) 유선희 (2) 조정숙 (2)

문정애 (2) 김정숙 (2)

김도균 (1) 손기범 (1) 오심정 (1)

目 次

- I. 概 觀
- II. 公認宗教
- III. 部落信仰
- IV. 巫俗信仰
- V. 個人信仰

I. 概 觀

1994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서귀포시 江汀洞에서 이 마을의 信仰에 대하여 調査한 내용이다.

調査는 公認宗教, 部落信仰, 巫俗信仰, 個人信仰으로 나누어 행해졌다. 江汀마을은 장수 마을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個人信仰인 경우 개인이 지닌 신앙을 잘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려는 특성으로 특히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자들의 미숙함으로 풍족한 자료는 되지 않지만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公認宗教

강정동에는 강정교회와 慈光寺라는 寺刹이 있어 公認宗教로서는 基督教과 佛敎가 있다.

1. 基督教

江汀洞 4399번지의 강정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이다.

강정교회는 법환교회 교인이던 김문현, 고원련, 김문행, 강명희, 이만희(도순), 문정희(용홍), 이양춘(도순), 이효순(도순), 윤미라 제씨들이 강정리 4570번지 김문형 집사 댁에서 서울 영락 교회에서 파송된 이득홍 전도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1948년 4월 30일에 창립되었다. 1952년 하정옥 전도사가 부임해 와서 교회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1963년에 부임하신 현성복 전도사는 1971년 현 예배당을 준공하였다. 그 후 여러 전도사와 목사들이 교체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목사님이 귀덕교회로 가셔서 현성복 장로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 새 목사님은 조만간에 오실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신도수는 어린이 90여 명을 비롯한 110여명이고, 사업 운영은 신도들의 성금으로 하고 있다. 중문 예레교회를 4년전부터 한 달에 2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고, 자택이 없는 할머니 세 분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예배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일요일 오전 7시, 11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밤시간을 피하여 오후 4시에 예배가 있다.

2. 佛 敎

대한 불교 태고종 자광사(慈光寺)는 1948년 10월 1일 강정 마을의 불교 신자 약 300명이 사찰 건립을 위한 교도회를 조직함으로써 태동되었다.

이 교도회는 동년 12월 22일에 강정동 2930번지 대지 위에 사찰 건립을 시

작해서 1949년 5월 1일에 완공하여 선광도장을 개설하였고, 1952년 10월 2일에 사찰명용 선광사로 정하였다. 그 후 1962년 3월 30일 강정동 2990번지로 이설하였으며, 1964년 7월 5일 사찰명용 자광사로 개명하였다. 1984년 음력 정월에 과거의 17명의 사찰 건물을 건평 23평으로 증, 개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김성운 주지스님이 혼자 계시고 신도수는 200~300명으로 가구수는 150~170호 정도이다.

Ⅲ. 部落信仰

강정마을은 옛날부터 연중 2회씩 마을의 공동 제사를 지내왔는데, 하나는 음력 정월 초순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갖는 별제이고, 다른 하나는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음력 유월의 포제이다.

그런데 도중에 이 두 가지의 마을 제사를 하나로 합쳐 마을의 평안과 풍작을 동시에 기원하는 년 1회의 마을제를 매년 음력 정월 초순에 지내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별포제이다.

이 별포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까지 지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별포제 때 사용하던 제복, 제기, 서책 등 도구들이 강정 국민학교에 보관되어 있다(제보자 윤경노(73세)).

* 별포제

- 1) 名稱 : 별포제
- 2) 祭神 : 태세위, 리사신, 칠성신, 리포신, 유행신, 토지신, 요왕신,
* 토지신과 요왕신에게는 각각 공동묘지와 포구에 가서 지낸다.
- 3) 祭日 : 음력 정월 초순의 丁日과 亥日 중 하루를 택하여 子時에 제를 지낸다.
- 4) 祭場 : 강정천 하류의 잔디밭에 댕부리라는 포켓단
- 5) 祭儀 管理

① 회소집 : 제일 3일전에 향회(상바-도가집)를 열어 제관을 선출하고, 제관들은 부이장의 집에서 근신하며 정성을 드린다.

② 성금 : 마을의 공금으로 한다.

6) 祭官 : 15~20명을 선출한다.

① 자격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삼헌관은 마을을 통솔했던 이장이나 부이장으로 하고, 그 외의 제관들은 대부분 부락 유지의 청년들로 뽑는다.

② 제관의 종류 :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 지휘관(홀기를 읽는 사람)

典祀官 :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등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

大祝 : 축문을 읽는 사람

鬻者 : 행제할 때 헌관을 인도하는 사람

贊人, 贊者 : 집례가 홀기를 읽을 때 보조하여 읽는 사람

奉香 : 향을 받드는 사람

奉爐 : 향로를 들어 받드는 사람

奉爵 : 헌관에게 술잔을 드리는 사람

司樽 : 행제 때 술을 관리하고 잔에 술을 부어 주는 사람

奠爵 : 헌관이 드리는 술잔을 신위에 올리는 사람

豫差 : 예비헌관

都豫差 : 예비집사

* 초행례 : 그 해 설달까지 결혼한 사람인 동시에 한번도 제관으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제관으로 처음 뽑히면 제관들에게 시루떡이나 돼지고기, 술 등을 바치는 의례가 있었다.

7) 入祭 : 제일 3일전에 제관들은 부이장의 집에 모여 합숙한다.

(禁忌) 금줄을 쳐서 부정한 것(장사난 곳, 피를 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자를 금한다.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며 정성을

다한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제일을 연기한다. 제관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셋째 날에는 바깥 출입을 일체 금한다. 합숙하는 집에 여자 출입은 절대 금하고 그 집안 여주인은 집에서 일을 거든다.

8) 祭物

- ① 메 4개 : ('稻梁黍稷'이라 하여 쌀과 기장으로 하나 기장이 없었으므로 조로 하였음. 곧메 2, 조메 2)
- ② 果類 : 5과나 7과를 올린다. (비자, 대추, 밤, 귓감, 땡유자, 사과, 배)
- ③ 犧牲 : 돼지 한 마리(창자만 빼고 생으로 통째로 올린다.)
닭 한 마리(창자만 빼고 생으로 통째로 올린다.)
- ④ 幣帛 : 명주 (세자 세치), 종이 (7장)
- ⑤ 祭酒 : 청주(첫 곡식이 나오는 9월에 전사관이 술을 담근다.) 제주를 봉할 때(올릴 때)는 마스크를 하고 아무나 손대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성을 다한다. 그밖에 소고기와 바다고기 그리고 무채(菁菹)와 미나리채(芹菹) 등이 쓰인다.

9) 行祭 : 유교식으로, 執禮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행한다.

* 향장제도가 있어서 향장님이 하늘을 보며 입제 시간을 감지하고 사환을 심부름 보내어 '제 지내라'하는 말을 전하면 그 때祭를 지낸다.

홀기는 다음과 같다.

年 月 日 別前祭笏記

謁者引 祝及諸執事俱就壇前拜位 北向立 皆四拜 興平身 引詣西向立 盥洗 各就位 謁者引 三獻官入就位 北上西向位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司 謹具請行事 三獻官皆四拜 興平身 謁者引 初獻官引詣四向立 盥洗 入就 太歲神位前 跪 執樽者舉爵酌酒 獻酌 三上香 獻幣 獻祝讀祝 興平身 謁者引 初獻官入就大星君神位前 跪 酌三上香 獻幣 俯伏興平身 引詣元星君神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俯伏興平身 引詣眞星君神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俯伏興平身 引詣纓星君身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俯伏興平身引詣剛星君神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俯伏興平身 引詣紀星君神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俯伏興平身 引詣開星君神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俯伏興平身 引詣大星君神位前 獻祝讀祝 俯伏興平身 謁者引 初獻官入就里社神位前 獻酌 三上香 獻幣 獻祝讀祝 俯伏興平身 謁者引 初獻官入就里王神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獻祝讀祝 俯伏興平身 謁者引 初獻官入就流行神位前 跪 獻酌 三上香 獻幣 獻祝讀祝 俯伏興平身 引降復位執事者就無嗣位 獻酌 三上香 獻幣 謁者引 亞獻官 引詣四向立 盥洗 入就太歲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謁者引 亞獻官入就 大星君神位前 跪 獻酌俯伏興平身 引詣元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詣眞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詣繆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詣罔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謁者引 亞獻官入就里社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謁者引 亞獻官入就里王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謁者引 亞獻官入就流行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降復位執事者 就無嗣位 獻酌 謁者引終獻官 引詣西向立 盥洗 入就太歲神位前 跪 獻酌 開飯蓋 俯伏興平身 謁者引 終獻官入就大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詣元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詣眞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詣繆星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詣罔星君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謁者引 終獻官入就里社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謁者引 終獻官入就里王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謁者引終獻官入就流行神位前 跪 獻酌 俯伏興平身 引降復位執事者就無嗣位 獻酌 三獻官皆四拜 興平身 謁者引 初獻官入就飲福位 跪 執事者撤邊瓦盞成酒道 飲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 初獻官就望燎位執事者取祝幣毛血 就于坎方焚之 興平身 引降復位 三獻官皆四拜 禮畢出 諸執事皆四拜 禮畢出

- 10) 飲福:제가 끝나면 祭官들과 마을 유지들이 모여 먹는다.
- 11) 性格:육축번성, 豊農, 健康을 기원하는 기복제의 성격이다.
- 12) 祝文

年 月 日 醮祭 祝文

維歲次 某月某日 敢昭告于 太歲之神 伏以 二氣順布 四序代行 乾道磨蠲 歲德新迎 時風時雨 惟在厥成 民其仰賴 同樂群生 伏願明靈 不遺下情 特垂陰鷲 降錫諸禎 謹以清酌 牲幣脯醢 明薦于神 尚饗

里社之神 伏以 赫赫在上 明明在下 肇判以後 鎮我后土 吉凶禍福 莫非神賜 神有其靈 民賴其德 伏惟明靈 特垂陰愍 轉禍爲福 變凶爲吉 今擇吉辰 敢獻微誠 謹以清酌 牲幣脯醢 明薦于神 尚饗

七星之神 伏以 躡次北極 衆星拱之 昭回于天 各有其時 人之壽福 惟神所司 若非其德 民常居危 伏願明靈 垂察民私 億非同樂 壽福永斯 謹以清酌 牲幣脯 醢 明薦于神 尚饗

里醮之神 伏以 皇矣冥靈 司我稼畜 民神生享 在茲大本 民不穀飢 神不穀素衣 食豐足 民知禮節 雨順風調 莫非神伸 賜伏惟尊靈 特垂陰眷 禾稼成熟 畜類蕃殖 謹以清酌 牲幣脯醢 明薦于神 尚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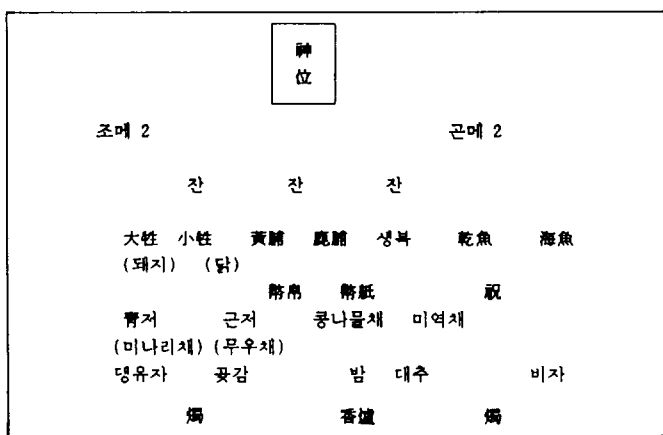
流行之神 伏以 關於天地 盛矣其德 神保其民 民依其靈 其崇後民 民豈安堵 伏願尊靈 屬于上天 不相侵瀆 謹以清酌 托幣脯醢 明薦于神 尚饗

土之地神 伏以 雄我江汀 共同墓地 開其靈域 各自奠獻 據於順禮 雄以新代制 禮節約 例舉共同 敢獻微誠 謹以菲薄 奠獻 尚饗

瀛州南海 祝融之位 伏以 海之大勢 猪雞蒸測 寶庫無量 百物生焉 風雨動氣 雄靈先知 雄此孟春 恭修敬事 伏雄明靈 特垂隱眷 遠洋近渚 航路順調 漁歌唱 免昇平日月 浦上群娥 採採共得 泳之游之 俾無沈滯 和風惠雨 年事登穰 謹以清酌 牲幣脯醢 祇薦于神 尚饗

佐港神堂之靈 伏以 雄靈有所 照應海物 隆替莫非 其出衣民 之至愚曷 不爲咎 今 以吉辰敢 獻微沈伏 雄堂靈下 察民私補 上出入航 路勞順調 垂瓢浮沈 紅娥喜面 漁採兩問 資源豐富 謹薦菲薄 是欵是 饗

13) 陳設



IV. 巫俗信仰

강정에는 본향당과 두 개의 일뤼당, 그리고 여드렛당, 갯당이 있다.

본향당은 '큰당'이라 하는데 마을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밀감 과수원 속에 있다. 일뤼당의 하나는 마을의 서쪽에 있어서 '서당'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동쪽에 있어서 '동이당(내기릿소당)'이라 한다. 이 일뤼당은 모두 할망당으로 본향당 하르방의 각시인데, 서당할망이 본 각시라고 마을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다. 이 할망이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하르방이 쫓아버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1. 큰당(본향당)

- 1) 堂名 : 큰당
- 2) 神名 : 하로백관
- 3) 神位 : 하르방
- 4) 祭日 : 정월 초하루 (이때는 집에서 차례를 지낸 후 남자 어른들도 과세 문안 드리러 간다.)
팔월 보름
- 5) 神體 : 신목(팽나무)
- 6) 祭物 : 사발메 1, 보시메 2(사발메는 본향신을 위한 것이고, 보시메 두 그릇은 본향신을 최초로 모시기 시작한 한씨 할머니와 딸 심부름꾼인 김소환을 위한 것이다 한다.)
시루떡 1, 제숙 3, 과일 3, 소주, 감주, 계란
- 7) 性別 : 남
- 8) 機能 : 가족의 무사평안
- 9) 堂건조형태 : 신목형, 제단형, 전담형, 석원형, 지전물색형
- 10) 단골 : 주민 전체. 상단골은 고씨이다.

* 심방이 굿할 때 7일 정성을 올리고, 돼지고기를 일체 먹지 말아야

하며 동네에 초상이 나도 제일은 그대로 한다. 주민들이 당에 갈 때도 돼지고기를 먹은 지 3일이 지나야 갈 수 있다고 한다.

11) 매향 심방제보 : 박씨 조부 → 박씨 부 → 박남하(65)

(다른 당에도 박남하 심방이 간다)

* 강정 본향당에 관한 傳說

강정 본향당의 설치 유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江汀里 入住 高氏 最先代인 고은립의 五代孫 고생득의 처인 韓氏 할망(할머니)이 지금으로부터 約 200년 전에 강정동 속칭 더넛 동네에 살았었다. 當時 이 韓氏 할머니는 가정이 넉넉하여 호화롭게 살면서, 특히 무당 굿을 좋아했는데 어디서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十里밖까지라도 김소환이라는 말 심부름꾼(馬夫)을 데리고 말을 타서 굿구경 다니는 것이 일췌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韓氏 할머니가 사는 동네 뒷동산에 백발 노인이 나타났는데 한씨 할머니가 이상히 여겨 그 老人 앞에 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떤 어른이 신지 여쭙어 보았다. 이 때 그 백발노인이 대답하기를 " 나는 이 마을의 土地 本郷이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모시는 사람이 없으니 꽤 씁쓸하다" 라고 말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韓氏 할머니가 처음으로 가시물 入口 나무수림 안에 본향당을 모시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그 당자리가 불결하고 물 길러 다니는 길옆이 되어서, 현재의 강정동 2923번지의 田에 새로이 堂집을 짓고 본향당을 옮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一帶를 속칭 당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강정리에 지방의 높은 벼슬을 하는 분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를 환영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을 청년들이 당집에 북, 징, 장구, 땡가리 등의 도구들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요청이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난 金富堅이라는 청년이 당집에 불을 질러 버렸다. 그리하여 강정동 2953번지에 있던 당집은 燒却되었는데, 당시 그곳에서 평 한 마리가 날아가 멀리 다른 곳에 앉은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이때 평이 날아가 앉은 자리인 강정동 4276번지 田으로 얼마 후 당을 옮겨

復元시켰는데 이것이 지금의 강정 본향당이며, 강정동 4276본지 일대를 속칭 큰당밭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서당

서당은 이름대로 마을의 서쪽으로 500~600m 쯤에 위치해 있다. 가로, 세로가 800cm로 돌담이 네모형으로 쌓아 있고, 큰 팽나무 세 그루가 있고 제단은 삼각의 모양이다.

- 1) 堂名 : 서당
- 2) 神名 : 일렛할망
- 3) 神位 : 할망
- 4) 祭日 : 음력 동짓달과 유월의 일렛날 (7일, 17일, 27일)
- 5) 神體 : 신목(팽나무)
- 6) 祭物 : 사발메 1, 보시메 2, 제숙 3, 과일 3
- 7) 性別 : 여
- 8) 機能 : 집안의 평안(액막이)
- 9) 堂 건조형태 : 신목형, 제단형, 석원형, 지전물색형, 전담형
- 10) 단골 : 마을 주민 일부

3. 내기릿소당(동당)

강정동의 동쪽으로 강정 수원지(내기릿소) 옆에 위치해 있어서 이름이 내기릿소당이라 한다. 움푹 들어간 곳에 둥그렇게 나무들이 뽕뽕이 서 있는 어두운 곳이다. 큰 가시나무(신목)가 바위틈에서 세 가지로 뻗어 있었고 제단은 자연적인 것이다.

이 당은 토산 일렛당에서 가지 갈라온(중산해 온) 당이다.

- 1) 堂名 : 내기릿소당
- 2) 神名 : 일렛 할망
- 3) 神位 : 할망
- 4) 祭日 : 음력 동짓달과 유월의 일렛날 (7일, 17일, 27일)

- 5) 神體 : 신목(가시나무)
- 6) 祭物 : 서당과 같음
- 7) 性別 : 여
- 8) 機能 : 서당과 같음
- 9) 堂 건조형태 : 신목형, 제단형, 천변형, 암굴형, 지전물색형
- 10) 단골 : 마을 주민 일부

4. 새별당 (갯당)

강정 바다 포구 멀억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작은 규모로 어부들과 해녀(잠수)들이 주로 다니므로 '어부당'이라고도 한다.

- 1) 堂名 : 새별당
- 2) 堂神 : 용왕또(요왕 할망)
- 3) 神位 : 할망
- 4) 祭日 : 일반 주민들은 백중날(7월 14일)
어부나 잠수들은 매달 초하루나 보름날에 간다.
- 5) 神體 : 신목(팽나무)
- 6) 祭物 : 서당과 같음
- 7) 性別 : 여
- 8) 機能 : 바다에 나가서 무사하게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있도록 빈다.
- 9) 堂 건조형태 : 제단형, 해변형, 신목형, 지전물색형, 천변형
- 10) 단골 : 어부와 잠수
- 11) 特徵 : 당에서 제의가 끝나면 지전에 쌀 세 줌과 무게를 실케 하기 위해 십원짜리 동전 3개(옛날에는 철을 뿜아서 넣었음)를 싸서 바다에 '지들린다'고 한다.

5. 개구럼비당(여드렛당)

강정 국민학교 밑으로(남쪽으로) 바다로 내려오다가 방파제가 내려다보이는 곳의 길가 옆에 나무들과 넝쿨로 뒤덮여 있다.

가로 380cm, 세로 300cm로 다소 작은 반원의 모양이고, 팽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당은 토산 여드렛당에서 가지 갈라온(중산해 온)당이다.

- 1) 堂名 : 개구림비당
- 2) 堂神 : 여드레할망
- 3) 神位 : 할망
- 4) 祭日 : 음력 유월, 11월의 8일, 18일, 28일
- 5) 神體 : 신목(팽나무)
- 6) 祭物 : 서당과 같음
- 7) 性別 : 여
- 8) 機能 : 서당과 같음
- 9) 堂건조형태 : 제단형, 신목형, 해변형, 지전물색형, 암굴형
- 10) 단골 : 법환동에서 강정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주로 다녔는데 차츰 강정동 주민들도 다님.

V. 個人信仰

1. 土神祭(재보자 : 김술득 73세)

토신제를 지낸 후 조왕제를 지내고, 끝난 후에 문전에 시식한다.

- 1) 時期 : 정월이나 3월(주로 정월)에 1년에 한 번 하거나 3년에 한 번 지낸다. 날은 절에 가서 스님에게 택일해 오는데 시간도 본다. 집마다 달라 아침에 하거나 밤에 한다.
- 2) 精誠 : 3일 정성을 하는데 금줄을 쳐서 상남 집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본인도 외부 출입을 삼가한다. 목욕 재계하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 3) 祭物 : 토신제-곤매 2, 조매 2, 곤시리 1, 조시리 2, 채소(미나리, 콩나물, 고사리), 과일(밀감, 배, 사과, 귤, 대추), 제숙(뜸, 상어, 명태), 물사발 1, 초 2, 향 1

조왕제-술으로 밥을 지어 밥주걱과 숟가락을 쫓는다.

채소, 과일, 초 2, 향 1, 물사발 1, (제숙은 올리지 않는다)

- 4) 形式 : 스님을 불러다가 지내는데, 토신제를 마루 뒷문에 지낸 다음 조왕제를 부엌에서 지낸다. 그런 다음 토신제, 조왕제에 올렸던 음식으로 문전에 시식한다.

2. 맹감코스

강창규(78세) 할아버지의 아들이 바나나 비닐 하우스를 했는데 전기모터가 돌지 않았다. 기계를 고쳐봐도 되지를 않자 맹감코스의 형식으로 일명 “영농제”를 지냈다.

祭日은 지신 하강일을 보아다가 했고, 장소는 하우스 속 깨끗한 곳에서 메 1, 갱 1, 고기, 과일, 떡 등을 올렸다. 축문은 아들이 읽었다고 한다.

농사 풍작의 기원 형태인 맹감코스를 지내고 나니 기계가 잘 돌아가게 되어 바나나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3. 백중제

백중제는 음력 7월 14일에 제석 지신에게 우마의 번성과 농사 풍작을 기원하는 제이다. 오늘날에는 논농사를 하지 않으므로 행하는 집이 없다.

4. 배코스

매달 초하루 보름에 안전한 어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이다. 메 3개를 준비하여 고물(배 앞), 이물(배 뒤), 화장(배 중간에 밥 짓는 곳)에 각각 상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